朝鮮日報
夕刊
十三日(木)
本紙夕刊二十面

獨伊態度에 憤慨
佛、西政府軍援助?
十七日까지不干涉案안되면
協約案締結을斷念

【巴里十二日發同盟】西班牙內亂의 重大化를 앞두고 佛國政府는 不干涉案을 提示하고 關係各國政府에 協力要請交涉을 進捗하고 잇는데 獨伊兩政府가 모다理由를 羅列하야 不干涉案의成立을 阻害하는事實에 憤慨하야 來十七日까지에 協約案이 成立되지안흘 境遇에는 公然 西班牙政府軍을 援助할 決意라고 解釋된다 佛國政府當局은 十二日以上의 方針을 示唆하야 左와如히 漏洩하엿다

西班牙內亂에依한 國際危機를 打開함에는 關係各國에 協約案을締結하는以外에 다른方法은업다 그런데 獨伊兩國政府가 協約案에對하야 함부로 遁辭를써서 依然誠意를 表示치안는것은 遺憾이다 佛國政府는 八月十七日까지에 不干涉協約案이 成立되지안흐면 西班牙政府를 援助할수박게업슬는지도 알수업다

융켈機의 抑留로
獨政府最後通牒?
飛行機와搭乘者의返還要求
西政府獨要求容認乎

【리스본十二日發同盟】西班牙政府軍에게 獨逸製융켈機가 抑留되엿結果 獨逸政府는 十二日最後的通牒을보내여 左와如히 要求하엿다고傳한다

一、獨逸飛行機가 세비리아北方六十哩地點에 不時着陸하야 西班牙政府軍에게 抑留되엿다고傳하는데 獨逸政府는 右飛行機及 獨逸人 搭乘者의 即時返還을 要求함

一、西班牙政府가 右要求에應치안을境遇는 獨逸政府는 國交를斷絶할수박게 업슬것이다

右報道에 對하여는 다시確報가 업스나 外交界에서는 西班牙政府는 獨逸政府의 威嚇되여 獨逸政府의要求에 滿足을 與하기로 決定되엿다한다

右報道가 事實이라하면 西班牙政府는 國際法上의 不可侵을 完全히 無視한結果라하야 國際法上粉糾를 惹起하지 안흘가 念慮되여잇다

西政府軍艦 英佛領事館破擊?

【블고스十二日發同盟】叛亂軍國防人民委員會의 發表에 依하면 南方要衝 알헤시라스港에 砲擊을加하야 同地駐箚英佛兩國及亞爾然丁領事館을 破壞하엿다한다

不干涉協約案에 獨參加決意

【伯林十三日發同盟】獨逸政府는 西班牙內亂不干涉案에 여러가지로 留保條件을 附하야 容易히 同意를 與치안헛스나 융켈機가 西班牙政府軍에 抑留된 結果 各條件을 撤回하고 干涉和約案參加를 決意하얏다고한다 獨逸政府側에서는 十二日夜以上의 方針을 示唆하고 左와如한 意向을 漏洩하엿다

獨逸政府는 西班牙軍에게 抑留된 융켈機의 返還을 唯一의條件으로 和約案에 參加할것이따

콤인테른工作으로
蘇、西政府積極援助
叛軍을파시즘的暴徒로咀呪
하바롭스크放送內容

【하바롭스크十二日發同盟】西班牙의 動亂는 바야흐로 第二次歐洲大戰의 危機를 孕胎하고잇다 歐洲는人民戰線과 國民戰線의 二大블럭으로 兩分되어 戰火가 爆發되려하는때 歐洲諸國에 擴張하고잇는 人民戰線은 파시슴의 恐威에 對抗하기爲하야 各國人民戰線과 協力、其他勢力擴張에 援助할것」이라는 第七回콤인테른大會의 決議에 依해서도明白한바와如히 콤인테른의 世界赤化工作의 一段階로 코민테른 工作의 對象을 形成하는것이다 따라 西班牙의 動亂은 코민테른의 가장注意하는바이며 旣報한바와如히 蘇聯國內民衆으로하여금 人民戰線派의 援助를 指示하고잇는데 하바롭스크放送에 나타난 西班牙의 動亂을 中心으로 極東蘇領民衆에 對한蘇聯當局의 宣傳工作을 보면 八月初旬부터 顯著히 西班牙政府派를支持하는傾向을갖고 政府軍은 士氣昂揚하고 叛亂軍은 [illegible]하데 反하야 叛亂、掠奪、放火、殺戮의 惡無道의 極을다한다고 宣傳하야 極東民衆의 叛亂에對한 反感心을 刺激煽動하고 八月五日의 放送은 蘇聯民衆은 西班牙動亂에 關하야 重大關心을 가지고 잇다 蘇聯勤勞大衆은 西班牙人民戰線을 援助키 爲하야 各自의 收入을 割與하고잇다。바야흐로 西班牙勤勞大衆은 自由獲得을爲하야 銃을들고 싸우고잇다 西班牙動亂은 西班牙一部將軍의 反亂은아니다 反亂陰謀에는獨逸、伊太利의 파시스트가 參加하여잇다 獨逸은 西班牙에 飛行機와 戰鬪艦을 보내고 伊太利는 飛行機와 武裝한 飛行士多數를 西班牙에보내고잇다 獨逸은 먼저 西班牙를 反佛同盟者로 하려하는데 西領모록코에 自國의軍事飛行根據地를 建設하려고企圖하고잇다 西班牙動亂은 파시스트에依하야 組織된 戰爭의새로운製造所이다 西班牙勤勞大衆에依하야 展開된戰爭은 平和獲得의戰爭이다 各國의 프로레타리아는 西班牙政府의 支持를自國政府에 要求하고잇다 蘇聯大衆은 西班牙動亂反對輿論을 昂揚하고잇스나 이소리는 萬國이首肯하는줄로 確信한다 그리고 八月七日하바롭스크放送은 西班牙動亂에對한 極東地方民衆의政府支持運動에關하야 左와如히放送하엿다

부라고베시첸스크諸工場에서는 多數勞働者男女가 西班牙動亂에關聯하야 集合을開催하엿다 彼等은異口同聲으로 파시즘的暴徒를咀呪하고 自己의權利를爲하야 鬪爭하고잇는西班牙勤勞大衆에 同情을表하엿다 「메탈리스트」工場勞働者는 戰爭의點火者 獨逸 伊太利 파시스트가 援助하는 暴動이라고 指摘하고 西班牙民衆에게 激勵文을 보내엿다 그리고 他의集會에서는 勞働者가「西班牙勞働者의鬪爭을 援助하라 我等은 일즉內政干涉과 白衛軍排擊에際하야 外國勤勞大衆이 我等에게援助와好意를 寄與한것을記憶한다」고 聲明하엿다고 放送하고 다시同日夜의放送에 잇서서는「파시즘의暴徒와 戰爭하는 西班牙民衆에 協力을 보내는 蘇聯勞働大衆의集會는 全聯邦各地에서 開催되고잇서 勞働者는 一致하야 自己의勞銀의一部를 割愛하고잇다 我等은 西班牙民衆에 物質的援助를한다」고 放送하엿다 前記哈府라디오放送에依하야 明白하게看取되는것은 蘇聯은 西班牙動亂을 單純한 他國의動亂으로 보지안코 코민테른赤化工作의 重大危機를 직히지라하야 파쇼戰線의 强化를 꺼하야獨 伊를 非難하고 白國의 動亂과如히 民衆으로부터 더욱金錢을 搾出케하야 西班牙人民戰線의 援助에 努力하고잇는것을알수잇다

西班牙政府無視한
一方的協定反對
駐佛西大使見解表明

【巴里十一日發同盟】巴里駐箚西班牙大使 아보롤노스氏는 本國政府의 訓令에基하야 十日午後 獨白外務省에 델보스外相을 訪問하고 內亂不干涉協約에對한西班牙政府의 理解를披瀝하엿다 右에對하야 아보롤노스大使는左의點을 明望하는것이라고 解釋되다

一、西班牙政府는 各武器輸出國政府가 一齊히不干涉協定에參加하야 武器禁輸를 實施함에는 異議업다 그러나 西班牙政府를無視한 一方的 協定을 締結하는데는 反對한다

一、西班牙의 政府는 內亂不干涉協定의 履行을 確保하기爲하야 國際統制委員會를 組織하기를 要求한다 그리고 武器密輸를 防止하기爲하야 各國海軍을 動員하야 西班牙沿岸海上에 國際監視隊를 組織할것을 主張한다

最後에 아보롤노스大使는타질國際委員會의 處置에 不滿을表明하고 左와如이 述하엿다

타질 國際委員會가 타지에는 港의地位에 對하야 極히 狹隘한 解釋을 나리고西班牙軍艦의 타질撤退를 要求한것은 西班牙海軍의 和平的使命을 忘却하는것임으로 遺憾이다

英大使佛外相訪問

【巴里十二日發同盟】巴里駐箚英國大使크라이브氏는 十二日佛國外務省에 델보스 外相을 訪問하고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에 對하야 其具體的內容을 聽取하엿다 席上에서델보스外相은 各國政府의 回答內容을 披瀝하고 國際情勢의 急迫에 鑑하야可及的速히 不干涉協約案을 實現할 旨를 强調하엿다 한다

산、세바스찬市를
叛軍이包圍形勢
政府軍도總攻擊敢行

【블고스十二日發同盟】西班牙叛軍은 十二日새벽以來 西北兩線에 亘하야 猛烈한 攻擊을開始하고 着着戰果를 確保하게되엿다 北部戰線에잇서서는 먼저 開港빌바오市와 要衝토로사호間의 小邑에이베를 占領하엿다 그리고 別動隊는 토로사는 北方六粁의 비리아보나市를 占據하야 바야호로 叛亂軍은 完全히 산세바스찬市를 包圍하게되엇다 에이벨及 비리아보나兩市는 重要한 軍需工業地로 從來산세바스치안으로부터 政府軍에 對하야 武器彈藥을 供給하여온것으로 政府軍은 其輸送道를 切斷當케되여 산세바스치안의 叛亂의 手中에 歸할날도 不遠하리라고 觀測되다 但政府軍은 十二日朝來 總攻擊을 敢行오비에이레드를 奪還하고다시루고베스宮로드等의 占領地點五個所를確保하엿다한다 西南戰線에 잇서서는 바다오스方面은 바야흐로部와의 連絡이 切斷되여 全然孤立無援한 狀態에 陷하엿다 그리고 프랑코將軍과 모라將軍麾下의 叛亂軍은 카스치지아바다오스附近의 가리시야 一帶를占據하엿다한다

有田外相藏相과懇談

【東京電話同盟】有田外相은 十二日午後四時 藏相官邸에 馬場藏相을訪問하고 七月上旬國策開

英獨兩國間
外交折衝進捗

【倫敦十二日發同盟】西班牙內亂을 中心으로한 國際情勢가 惡化하는데 伴하야 英佛獨伊四個國政府間에 二個國의 外交折衝의形式으로 外交打開工作이 자조 進捗되고잇다 特히 英國政府의 特使外務次官반시타트氏는 過般來 올림피大會參觀이라稱하고伯林에赴하야 히틀러總統 도이라르外相等 獨逸政府首腦部와 重要會見을 遂하엿다고傳한다 其席上에서 獨逸政府當局은 西班牙內亂不干涉協約案에 對하여는 어데까지 愼重을 期할旨言明하엿다하는데 [illegible]시 로카르노條約國會議에 對하여도 히틀러總統其他와 意見을交換하엿다한다 그리고 同次官은 十二日伯林을出發하야 歸途에 佛蘭西地方의適當한 場所에서 佛國外交界의巨頭와會見할豫定인듯하다 一方 히틀러總統의特使 립벤트로프氏는 近近獨逸大使로 倫敦에赴하야 英國外務省과 로카르노條約國會議의 基礎工作을 遂하리라고傳한다

保健國策大綱
明年度에一千萬圓要求

【東京電話同盟】軍部大臣이 閣議席上에서 國民體位의 低下를 指摘한以來 內務省에서 保健保健國策을 考究中이든바 마침내 衛生行政의充實 體育의普及 特殊疾病의 豫防 消極的對策은勿論 더욱 國民體位의向上과 健康增進의 積極的保健國策을 樹立하고 十二年度豫算에 約一千二百四十萬圓을 計上하야 大藏省에 正式提出하엿는데 保健國策의 大綱은 左와如하다

一、保健施設擴充에關한經費
가、體位改善에要하는經費 一〇、八六七
나、結核豫防施設의擴充에要하는經費 二、〇〇〇
다、[illegible]에要하는經費 三、〇〇〇
라、國民健康保險制度의 創設에要하는經費 二、八〇〇
마、軍事救護法改正에伴하는經費 二、六八〇
바、救護施設의擴充에伴하는經費 一、三四〇
一、國立[illegible]所擴張에要하는經費 一、〇八〇
一、精神病院[illegible]補助에要하는經費 一、〇八〇
五三〇

燃料國策全貌
商工省議서決定

【東京電話同盟】燃料國策確立에 對하야는 現內閣의 重要國策의 하나로 商工省이 中心이되여 審議中이든바 [illegible]을 要求하야 關係各省의 意見一致를 보게되엿슴으로 商工省에서는 十二日午後 省議를 開하고 液體燃料國策大綱의 再審議를 行하야 新次 其全貌를 決定하엿다 即政府는 國防、產業兩全의 見地에서 燃料國策確立의 急을 痛感하고 代用燃料工業의 促進을主體로 明年度豫算案에 擴充施設에關한 經費를 計上하기로 方針을決定하는同時에 商工省의外局으로 燃料局을 創設하야 行政事務를 掌理하기로 되엿다

◇燃料國策의全貌

一、代用燃料工業[illegible]을 立案
一、[illegible]
[illegible]
一、現在의商工省의 燃料研究所의 機能을 擴大强化하야 이를 中心으로 石炭液化事業을 이르킬것

國策決定에앞서
藏相、各相과會見

【東京電話同盟】政府는 軍部가 國策決定促進을 要望하고 財界方面에서도 政府가 斷行할 國策決定이 遲延됨으로 不滿을 感하고잇슴으로 마츰내 國策決定을 急하기로되여 廣田首相과 馬場藏相間에서 三長官의 査定을 基礎로 檢討하기로되엿는데 미리 各相의 意向도 드를必要가 잇슴으로 馬場藏相은 마침내 國策決定의 [illegible]으로 會談하기로되여 十二日에는 有田外相과 會見하고 다시 十三日午前十時首相과 [illegible] 閣議에서 [illegible]

[illegible]

廣西의李白兩氏에
最後的勸告訓電
蔣氏中心으로中央과廣東側將領重要協議
和戰兩樣의方策樹立

【廣東十二日發同盟】蔣介石氏는 十二日午後九時 迎賓館에 朱培德、程潛、余漢謀、香翰屛、顧大鈞의 諸將領을召集하야 余漢謀氏로부터 廣東軍改編計劃及 內部情勢에對하야 報告를聽取하고 다음 陳誠氏로하여금 十日歸來한 鄧世增、香翰屛兩氏의 南寧에在한 李宗仁、白崇禧兩氏와의 會見內容을 詳細히報告하고 繼續하야 凡二時間에 亘하야
一、廣西에對한 中央、廣東兩軍의 方針
二、廣西에對한 中央의 最後的方針
三、軍政問題의 善後處置
等에對하야 協議하얏다 그結果 蔣介石氏는 單獨으로 朱培德、程潛、陳誠、余漢謀四氏는 連名으로 李、白兩氏에게 中央의命令을 遵守하고 또 救國의方針을 即時 來粵하라는 最後的 勸告電을 發하얏다 또 午後五時부터 第二次會議를 開하야 李白兩氏의 態度에對하야 取할 和戰兩樣의方策을 協議하얏는데 蔣介石氏는 數日中에 時局問題에關하야 中央態度를 闡明하는談話를 發表할터이다

(寫眞은 蔣介石氏)

中央軍西進開始
廣西側應戰準備
李、白兩氏一戰不辭乎

【廣東十二日發同盟】蔣介石氏의 來粵으로 在廣東中央軍의行動은 마침내 積極化하야 粵漢線沿線에서 待機中인 中央軍三個師는 十二日朝來 廣西省境으로 向하야 西進을 開始하고 先着한 第十三師는 西江을 溯하야 梧州方面을 壓迫하는 態勢를 示하고잇다 一方湖南、貴州、廣東에 分駐하는 中央空軍도 連日威嚇飛行을 試하야 盛大히 宣傳비라를 撒布하고잇다 이에 對하야 廣西側은 應戰準備에 忙殺되여 第一、第二第三의 各防禦陣地의 構築에 死力을 다하고잇다한다 그리고 當地에 潛入하야 暗中飛躍을 繼續하고잇는 廣西派某要人談에 依하면 李、白兩氏는 中央이 어데까지廣西退去를 要求하면 一戰도 不辭할 決心인데 蔣介石氏가 討伐令을 發하면 即時 이에 應하야 討賊軍政府를組織하고 應戰할려고 이미 萬端準備를 整備하고잇다

滿洲國緊急統制法
十三日부터逐發動

【新京十二日發同盟】去七日日滿經濟共同委員會에서 決定한 滿洲國의 對濠貿易報復方策인 緊急統制法은 十三日 臨時參議府會議에 諮問하야 即日 發動하기로 決定하엿다 同報復法은 濠洲로부터 滿洲에 輸入하는 麥、羊毛、米等에 對하야 輸入許可制度를 設하야 이를 統制하는것이다

鮮滿拓殖重役內定

鮮滿拓殖에서 內定한 重役陣은 左와如하다
總裁 二宮治重
理事 渡邊日子 堤永市 向坊盛一郞 渡邊司郞 (又는米潮寬久松)
監査 高元勳 一名未定
그리고 監査一名은 東京의 有力한 實業家中에서 物色할模樣이다

人事·集會

▲森武彥氏(京城府內務課長) 江原水害救濟人事次來社
▲金永祥氏(京城府社會課長) 同上
▲兪鎭氏(端川漁港修築期成會長) 端川漁港修築陳情次入京中來社
▲金弘賢氏(同會員) 同上
▲石黑松之助氏(同上) 同上
▲金旺烈氏(同上) 同上
▲姜昌淳氏(同上) 同上

八面鋒

◇太陽!、長霖끄테 太陽은 萬物의 生命!。
◇나무가지에서 흘러오는 매암이소리조차 시원한비람을 보내인다。
◇京江一帶의 水災는 退却을 告하나 江原道와 慶尙道의 慘害는 戰戰悲報를 傳한다。
◇無辜한 犧牲者는 말할것도 업거니와、살어잇는災民을 어더케救할가。
◇扶助는 二三人의일、千으로 萬으로 헤이게되면 國家的 힘의 發動이아니면 不可能。
◇被害의 調査와 救濟의 施策에따라 根本的對策도 必要하지만 우선 應急對策은 엇더한고。

中風 高血壓
먹어서조코나뿐것
血液을淨化하는食物을選擇하라
食養生法

腦溢血、中風은 [illegible] 근심으로피가탁하여저서 [illegible] 나빠지기때문에 일어납니다。頭痛・上氣・眩暈・耳鳴・肩凝・어지럼・手足痲痺・性慾減退等은 高血壓으로 危險한 前兆이므로 速히 治療치안흐면 아니된다 그러함에는 먼저食物의 養生이 第一이다

리일혈、중풍병과심장마비에걸리였을때 一반으로너무살이젓다、될수잇스면 여위는 편이조타 그러함에는 육식을피하고 채식이나가식하는편이조타

大食 폭음은때때로뇌일혈 발작의동기가되다록히추진전에대식하는것은가장조치못하다、어떤박사의통계에의하면『육식자가채식자에비하야평균 ○미리나혈압이놉다』고발표하엿다

脂肪 (特히肉類의脂肪)은 혈관벽에지방침착을 이르키므로동맥경화를촉하야더욱혈압이노파진다.

果物 데이라고해서일부간시작정해엇는분에게는특히육식은 금물이다、이런분에게는 에이를가량 과실야채만흘먹는는것이 조타 락혈을정화하고 변비를득하야 병독을체외에 배설함에는채식보다 더조흔것은업다、

酒煙草 의유해한것은누구나잘안다. 특히니코친은 심장혈관의 경련을이르키어 협심증의발작(심장마비)를일으키는례가만타 공복시의흡연은 가장해롭다。

刺戟 이심한것 례를들면 고초 후추며가튼자극물은 코피가흐르게와찐것도조치안코 사탕의과량을 혈액아지도ー시스(산성혈액)을이르키는까닭 특히 당뇨이다병에는주의하지아니하면 아니된다、

要는 옳주 흡연을은코쪽 옳음식을큰신하야기 특기만흔것과자극을피하야 사기외신선한야채 과실을 만히 는것이 식양생의비결이다 (단 채중에서감자만은나쁘다)

이상의식양생을직히고 동시에 액정화의최신치료제로서 자급만잇는 リキシン 을 블로복용하면 무엇보다도 좃습니다 본제는 [illegible] 博士가 고심연구한결과 [illegible]

中風은불치가아니다

[illegible] リキシン은 전국약점에잇다 一圓半、三圓半、六圓半 大阪市大仁本町今津化學研究所로 조선일보라쓰시고 申込하면說明書를送呈한다.

害虫 完全驅除法
果樹·庭木·野菜
農學士 今津亮三氏談

먼저약제선택이제일이다. 그럼에는 세계각국의전매특허를어든イマヅ살충제가장리상적이다 본제는귀중한작물에절대무해하고 다음과가튼놀나운효과를발휘하는까닭이다

殺虫力 이비상히강하고 千배로히바한액에도 유충、진드물、적충、모충、청충동이모조리전멸한다.

忌避 의효과 본제를뿌리면버레가실어하는냄새가 흙에남어잇스므로 버레가붓지안는다. 큰과리와 진드물가튼 이놈이해충에는리상적이다

刺戟 의효과 언제어뎌든지사룹하는것과가티 본제는작물에자극을주어발육을왕성하므로 과수류는가을날염이 二、三주간이나떠러지므로 따라서량과가증수된다.

이상과가티 진기한효과가잇는두제제는 본제이외에 업습니다.

イマヅ殺虫劑는全國藥店에잇다、大阪市大仁本町今津化學研究所로 조선일보라쓰시고 申込하면『農作物害虫驅除에就て』라는 冊子를送呈함

蠅 南京虫 진드기 蚤 에
猛毒까쓰의發明
그러나人畜에는絶對無害

귀찬흔벌레이나리미경을점파하는무서운파리와안면을방해하는비록빈대진드기등 여름챙에서멸해할독까쓰가발명되엿다、그것은有名한イマヅ(香油芳芬)이다、イマヅ의향기는사람과가축에는절대로무해하지만해충에게는독까쓰가리작용하야삽시간동안에전멸한다、그사용법은

파 리소제전에イマヅ(香油芳芬)을옹물두려놓두면파리는전부버리면된다。씨리모흔가루를변소에버리면구데기가일절죽는다。

빈 대벼룩진드기에는자기건에다 꼿가루위에イマヅ을뿌려두면 옹루려두면숫의냄새로비려가 견뎨오지안흠으로안면할수가잇다

개 고양이우마가죽에부러잇는벼룩、이진드기、이흘은머리、개미、유충도(香油芳芬)으로전멸한다。

이상과가튼イマヅ(香油芳芬)은냄새가 이강하고오래가서임좃에는절대무해용법은그리고안전하므로가정은물론공장과청결하여서도해충구제이며반듯이イマヅ라고청해엿다。

イマヅ(香油芳芬)은目下全鮮藥店에서 大阪市大仁本町今津化學研究所에 申込하면說明書를進呈함。

便所臭氣止 南京虫退治に
イマヅ 芳香油
臭氣防止 구데기防止
빈대 진드기 退治에 (香油芳芬) 併用
今津化學研究所 (發賣元) (有に)

婦人의메모
衣服의蠧虫

[illegible] 보존의비결 좀벌레의 선충이제일이다 서장련매롤에는イマヅ방충향이 가장조라 훌륭한 경하지만 [illegible] 옷장에 [illegible] 또잔하지안코종래 [illegible] 가장적절한것이 [illegible] 이잇다 [illegible] 의일이 [illegible] 저어하다

白頭山探險團 今日勇躍天池에!

대망의십삼일 이날은 본사주최의 백두산탐험대십명의일단이 우리민족의령지 절승의천지(天池)에 근친하는 기념할날이나 무섭게퍼붓든 장마비도 십이일오후부터개이기시작하야 십삼일에는 아주활작개이엇다 백두산을중심으로 오전여섯시현재의천후를보면

조선해협에 아직불련속선(不連續線)이 약간남어잇기는하나 중부조선에 고긔압이발생하야 세력을펴고잇는 일방에 태평양(太平洋)에는 거대한고긔압이 일본을거처 일본해와 반도로밀려오고잇서 남조선일부에 호리든일기까지 패청할모양이고 북방의형세를 보면 멀리북만주흑룡강(黑龍江)안에 저긔압은잇스나 이여시북으로 밀려갈형세에잇서 문제도안되고 남만주일대는 각지가모다 패청이다 따라서북조선은 당연히날이맑으리라는결론을 어들수잇거니와 현재의보고를보면 중강진(中江鎭)성진(城津)이패청, 웅긔(雄基)가 다소흐리고잇스나 해가떠지면 날이들모양이다

아가티하야 천후는패청하나 고산지대의 천후라고해서 다소의변동이 잇슬런지 몰은다는 념려가업지는 안타고해도 대체는백두산상봉에도 패청하리라고 볼수잇슴으로 이날의 백두산탐험의 최후목표 최대의 긔븜천지근참은 만점의 성공을거두엇다고 미더조흘것이다

……◇……

우리 탐험대일행은 그간무산(茂山)을 등산근거지로 만반의준비를 마추고 떠나간것은 구일오전구시 자동차로칠십이키로의 길을 산협계곡으로 달리기다섯시간에 백두산의 삼분이라고할수잇는 농사동(農事洞)에 다엇다 그러고 여기서 밤을자고 십일부터는 도보로 본격적등산이개시되는것이다, 이날오전새벽엿시 청신한 령산 산긔운을 마시며 삼십명대원에 일행의식량기타천막들을 실은태마대(馱馬隊)까지 데가좋은 고원지대를 올라가는것이다 그리하여 이날은 도보행군, 삼십삼키로, 대개오후네시경 무봉(茂峰)에 도달하야 일천이백미돌의고지대, 두만강(豆滿江) 강반에서 천막을치고 등산최초의막영(幕營)을하게되것인데 필경이날밤은 여기도비가내리어 일행은 다소괴로웟슬것이나 일면으로는 오히려장쾌한 경험이엇슬런지 몰은다

……◇……

날이새이면 십일일 아침은 칠시에 출발 오후네시경까지 삼십키로의 행군을하야 신무성(神武城)에서 다시막영을하고 십이일에는 다시아침칠시에출발하야 무두봉(無頭峰)까지 십칠키로를 약략칠시간에 가게되다 여기서는 이틀동안의 도보행군의 피로를 쉬일겸 근방일대의경관을 마음것감상하며 또과학반의 활동도 잇슬 것이 그대되다, 더구나 다음날은 천지에 다을날이니 대원의긴장은 흥분은 긴장에 날뛸이 잇슬것이다, 그리하야 마침내십삼일의 아침을 맛게된것이니 이날은 아침 다섯시 힘찬긴동천이 붉으려하니 밝아 올때에 총긔상하야 신선한 련산정긔를 마시며 다시금 마음을 깨끗이한다음 천지로! 천지로! 백한아버지의 발생의 그생을차저 가는것이다, 무두봉에서 천지까지가 십칠키로 임으로 행정이 속하면 오전 십시, 다소 늣는대도 십일시경에는 도착하야 일행은 청쾌한●날에 천지의 신비롱운경관을 바라보며 무한한감격에 차잇슬것이다

(사진은 백두산의 천지)

江原·忠北에도 水魔跳梁

原州、堤川兩地에 死亡者六十一名

行方不明十名、負傷者卄餘名

原州만百八十戶流失

【警務局着電】 십삼일 아침에 들어온 각지수해상황은 아래와갓다

▲충청북도제천군송학면자곡리(堤川郡松鶴面紫谷里)의 산이문허저서 류실가옥이 팔호, 반궤가옥이 삼호이고 죽은사람이 이십오명인데 일곱명의 시체는 발견하엿고 부상자가 십오명이다 송학면오미리(五味里)에는 류실가옥이 십오호 반궤가옥이 이십호 죽은사람이 세명이다

▲강원도 원주(原州)에는 사망자가 삼십삼명이고 부상자 팔명 행방불명자 십명이다 가옥피해는 류실이 일백팔십삼호 반궤가 삼십삼호 침수가옥이 구백칠십삼호이다 도로류실이 십구개소 교량류실이 여섯곳이다 전답류실은 일백십이정보 침수는 오백륙십정보이다

江原各地 電信電話不通

僻地被害詳細不明

罹災民千名救護中

【警務局着電】 ▲원주군건등면문막리(原州郡建登面文幕里)와 부흥면흥호리(富興面興湖里)의 피란민천명에게는 방금당지경찰과군, 사무소와 소방대가면 출동하야 그구호에 노력중인데 우선급한대로 밥을지어서 먹이고잇다

▲강원도홍천군(洪川郡)에도 죽은사람이 한명이다

▲강원도내에 이번 수해난곳은 대개 전신전화가 방금 불통되여잇서 그자세한상태는 아직알수업다

濁流에 農民十餘名

【醴泉支局特電】 안동(安東)례천(醴泉)간 락동강(洛東江)지류의 철교가 끈허저 가옥이호가 문허지며 강변농민십여명이 탁류에 포위되여 이십사시간동안이나 버드나무가지에 목숨을달고 구조를 부르짓고잇서 참으로 목불인견의 참상을연출하고잇스나 당국간 속수무책이다 (以上號外再錄)

楊平邑浸水

電信、電話不通

【楊平支局發】＝電話不通으로廣州支局에 依賴하야 電話＝십일부터 내린 큰비로 인하야 부근 한강상류가 증수되여 십이일 오후아홉시에는 십삼메돌의 증수되엿다 양평읍(楊平邑)은 삼백호가 침수되고 류실가옥이 여섯호고 도궤된 가옥이 삼십호에 달하엿다 이판에 한사람은 사망하엿다 피란민 삼백오십오명은 방금 웅급한 구조를 바라고 잇다 양평읍내川거위 칠수된 세움으로 각지로 가는 교통은 두절되고 전신전화도전부 불통이다

漢江濁流에 一名溺死

【永登浦】 십팔일 오전여덟시 시흥군북면 동작리(始興郡北面銅雀里)강에서 박남산(朴南山)(三○)외 열세명이 목선에다가 참외 열여덟짝을 가득실고 서울로 장을보러오다가한강 철교다리(橋脚)에 부드치며 배가 어퍼지는바람에 그중일곱명이 아우성소리를치면서 물속으로뛰여드러가서 소동되고잇는것을 때마침 이광경을 목도한 소봉환구락부(小鳳丸俱樂部)사공두명이 뛰여드러가서 여섯명은 구햇스나 권점동한명은 물에잡겨버리고말어서 그생사를 알수업다

忠北線復舊

이번수해로 말미아마 충북선(忠北線)달천─충주(達川─忠州) 사이의 렬차가 불통되엿다 이때문에 어느렬차나 달천에서되집어 운전하고잇섯스나 십이일오전아홉시이십분 조치원(鳥致院)을떠나는 긔차부터 개통을보게되엿다

工兵二名漂流

룡산공병대(工兵隊)병정 두명은 십삼일 오전세시오십분에서 빙고(西氷庫)에서 목선을 타고서 노를저ㅅ줄을 몰라서 그냥 하류에 떠나려갓는데 룡산경찰서에서는 경기도경찰부에 보고하야 연안지방의 각경찰서에통지하여 구조를 부탁하엿든바 오전네시오십분에 룡산철도공원(鐵道公園)아페 무사히 표착하엿다 한다

사진은 (상)본사구호반의식량운반과 리재민들에게 배급하는광경)

京江一帶減水

沿岸住民愁眉完開

날세가 완전히 개여젓스므로 한강물은 한시간에 약삼십오센치미돌식으로 작구주러지고잇다 십이일오후한시에 최고수위(最高水位)로 옥천(旭川)은 십일미돌십사이든것이 십삼일오후 두시에는 팔미돌십으로 하로동안에 삼미돌가량 줄어젓고 한강(漢江)은 구미돌구십(십이일오후한시)이엿든것이 십삼일 오후두시에는 륙미돌칠십으로하로동안에 삼미돌십오 가량줄어젓다 이대로 줄어가면 십사일쯤에는 평수위로 회복될듯하다

蠶島水害狀況

칠수가옥 일천백여호로 전호수가 거이다 칠수되엿스며 리재민의수해로 륙천백여명에 달한뚝섬수위는 십이일 오전열시의십메ㅣ타륙십랍(서른다섯자세치)약을 최고긔록으로 물이줄기시작하야 불안에차잇든 리재민에게 안도의빗을 띄우게하엿스며 왕십리방면에 피난하엿든 이천여명의 주민은 십삼일오전아홉시경부터 수마에게 여지업시유린당한『고향』으로 도라가기시작하엿스며 오후한시반 수위는칠메ㅣ타팔십으로 부적줄엇다 이제지금까지에 판명된 동대문서관내수해상보를보면 아래와갓다

▲人畜被害는업다

▲田畓浸水蠶島에個人所有千二百二十町步東拓所有長安坪開墾地堤防二十間決潰로四百町步浸水

▲流失家屋은업스나 蠶島에全壞家屋이二十五戶半壞本屋이二十九戶昌信、蓮建、敦岩、廣壯에四戶合計三十三戶

▲浸水家屋과罹災民數

東西蠶島里	床上浸水	二三八戶
	床下 同	一五戶
	罹災民	六、一五五名
新川里	床上浸水	六六戶
	罹災民	三九一名
蠶室里	床上浸水	三七戶
	罹災民	二四九名
廣壯里	床上浸水	四〇戶
	床下浸水	一〇戶
	罹災民	四八〇名
馬場里	床上浸水	二〇戶
	床下浸水	一五戶
	罹災民數	調査中
杏堂町	床上浸水	四〇戶
	床下浸水	一〇戶
	罹災民數	調査中
合計	床上浸水	一、三三一戶
	床下浸水	五〇戶
判明된罹災民數		七、二七六名

浸水家屋掃毒

霖雨뒤의衛生對策

장마뒤에는 배人병과전염병이 대개 만히발생할념려가잇스므로 경기도경찰부위생과에서는 도내각경찰서에 지령하야 칠수가옥의 우물을소독케하고 적리예방의 내복약을먹도록 장려하고림시청결(臨時淸潔)을 시행하기로 되엿다한다

慶北道內豪雨는 安東地方이中心

罹災民千餘名을收容救護中

田畓道路被害多大

【警務局着電】 경북지방의 이번수해는안동(安東)지방이 가장심하야 십이일낫까지에 학교와사무소 도립의원 례배당등에수용한피난민이 일천이백이십명에달하엿다 기타선산(善山)왜관(倭館)에도수해가 심하엿스나 사전에 주민을피난시키어 구호하엿다

또수해때문에 송전선(送電線)에 고장이생기어 내성(乃城)춘양(春陽)방면은 상일밤부터 또 락동강이 증수한때문에 칠곡군인동면(漆谷郡仁同面)에서 송전선의전주(電柱)가 십사오개칠수하야 군위(軍威) 의성(義城)안동 례천(醴泉) 영주(榮州)방면은 전등을 쓸수업서암흑천지가 되엇다는데 락동강이감수하기전에는 복구하기어렵다한다

그리고 경북지방의 피해상황은 다음과갓다

一、人命死傷 一 行方不明 一

一、家屋被害 倒壞 一 半壞八 流失四 浸水 五一

一、橋梁流失 一

一、道路被害 九十五個所 (그피해액은 만원)

一、慶北線 線路百九十米突

一、田畓被害 浸水九千三百五十五町步 流失一百十一町步

그리고 락동강은 그후 점차감수중이다

善山地方水災

【善山支局特電】 십이일부터 락동강(洛東江)이 강작히 증수하야 이로말미암아 선산군 구미면 지산동(善山郡龜尾面芝山洞)에는 칠수가옥 오호가 되엿고 전멸상태를 보이고 잇다 산간지대의 교통은 전부두절되고 가튼동리 서경석(徐敬錫)의 장남 병한(炳漢)(九)은 락동강 물에 빠저죽엇다 피해액은 아직 자세히모르겟다

府內田畓被害

이번 홍수로말미암아 경성부내의 전답의피해상황은 십삼일오전까지 판명된것만으로 전부칠수된것은 논 이백오십오정보와 밧 일백십정보이며 일부칠수된것은 논 이백오십정보와 밧이백칠십정보라한다 경성부내에 잇는논은 구백칠십일정보와 밧은이천오백오십륙정보로 논은 약삼분지이가 칠수되엿고 밧은 약팔분지일이 칠수된 세움이다

天氣予報

警報 오늘밤 京城地方은 개이며 一時는 흐리다 明日도 가트며 京城平壤全鮮도 갓다

昨日 最高 二六度七 最低 一五度九

今朝 一九度二 正午 二八度一

人命死傷一八九名 浸水家屋九千餘戶

警務局調査八道의水害集計

【十三日午後二時 現在 警務局集計】 전조선을 휩쓸다시피한이번 폭우로 말미아마 십삼일 각도로부터 경무국에 드러온 수해보고는다음과갓다

【京畿道】▲死者一名 ▲負傷者四名 ▲家屋倒壞 百四十六戶 ▲同浸水 四千一百三十五戶 ▲同流失 百六戶

【忠淸北道】▲死者 三十一名 ▲負傷者 十四名 ▲家屋倒壞 二百十九戶 ▲同半壞 百十四戶 ▲同浸水 一千三百五十二戶 ▲同流失 百七十九戶

【慶尙北道】▲死者二名 ▲行方不明 二名 ▲家屋倒壞 一戶 ▲同半壞十戶 ▲同浸水 五百五十戶 ▲同流失三二戶

【慶尙南道】▲死者二十九名 ▲負傷者四十一名 ▲行方不明九名 ▲家屋倒壞十六戶 ▲同浸水五百十五戶 ▲同流失二十九戶

【咸鏡北道】▲家屋倒壞八戶 ▲同半壞八戶 ▲同浸水一千三百二十戶

【平安北道】▲死者一名

【江原道】▲死者三十六名 ▲負傷者十七名 ▲行方不明十名 ▲家屋倒壞十一戶 ▲同半壞四百八十戶 ▲同流失百八十八戶

【忠淸南道】▲家屋倒壞三戶

【計】▲死者九十六名 ▲負傷者七十二名 ▲行方不明二十一名 ▲家屋倒壞四百四戶 ▲同半壞 二百十六戶 ▲同流失 五百十四戶 ▲同浸水 九千七百六十八戶 ▲田畓流失 百七十九町步 ▲同浸水 二千九百十一町步 ▲橋梁流失 各道合하야 十一個所

洛東江刻刻增水

警戒水位를突破

猛威떨치는豪雨 三南地方掩襲中

【釜山支局電話】 십이일오후부터 남조선전반에 빠치여 거창하게 나려퍼부은 비는 끄칠줄모르고 십삼일까지 계속해나리는중이다 이날 아침열시까지 비나린총분량은 최고백이십이『미리』로부터 최소 오십『미리』까지나되며 이때문에 락동강(洛東江)물은 매시간마다 이십이『센치』씩 작고 불어가는중으로 십삼일 오전열시현재의 수위만으로도 벌서평소에 경계하든수위를 넘고잇서 위험이 각일각으로 절박해오기때문에경남경찰부에서는 만일을 염려하여 비상경계를 하고잇는중이다。그리고 십삼일오전열시로 각지의 수위는 다음과갓다

	現在水位	危險水位
▲龜浦	四米	五米五〇
▲勿禁	五米十一	六米五〇
▲三浪津	六米	七米四〇
▲南旨	八米	一〇米
▲鳴旨	一米九九	二米五〇
▲大山	六米	七米五六
▲北面	七米五	八米三〇
▲南江	三米一一	四米八〇

仁川觀測所發表

【仁川】 남부중부 북부를통하야 휩쓸고다니는 호우는 중부지방에는 한강(漢江)연안에 막대한 피해를주고는 또다시 작십이일부터는 삼남지방으로 호우가나라고잇다 이제 금십삼일오전륙시 현재각지우량은

▲中江鎭四미리 ▲新義州九미리 ▲平壤一미리 ▲全州七미리 ▲木浦二二미리 ▲雄基二미리 ▲秋風嶺六〇미리 ▲大邱六九미리 ▲釜山四〇미리 ▲蔚山四六미리

로써 수해는또다시 남조선으로 몰리여 락동강(洛東江)이또한각각으로증수되야 연안이위험하다하며 일대위험을주든 태풍은의외로"코ㅡ스"를변하야 지나대륙(支那大陸)서북서(西北西)향향(香港)중심으로 진행중이다 조선은 다소아심될정도이다 따라서 남조선의강우는 금일까지계속하고 명일부터는개일듯하나 조선반도의 동남단(東南端)에불연속선(不連續線)이발생하야잇슴으로 안심은되지안는다 한다

水王産婦人科

本社救護班에 罹災民感激

왕십리(往十里)에본부를둔 본사구호반은 밤을새어가며 구호에 종사하엿고 십삼일에는 새벽부터활동을 개시하야 광란노도를무릅쓰고 뚝섬까지 건너가서이재민일천이백명에게 조반을분배하는동시에 약품까지 일일히배부하얏다 집응우에서 밤을새이고 날이밝기를기다려,물이빠지는것을보고 뚝지에 나려온이재민들은 본사구호반의 배급하는 더운밥을 바다들고 감격의눈물을흘리는양도 눈물겨운 광경이어니와 벌서부터무허진집을 고치기에 밧분광경도 갱생의노력으로 볼수잇섯다 오전여덟시현재뚝섬의 수위는팔메돌 오십팔로서거리의칠수는거의다빠진세음이다

各地天氣(午前六時)

中江鎭	晴	大邱	曇
新義州	曇	釜山	雨
平壤	曇	下關	曇
仁川	曇	大阪	曇
京城	曇	東京	曇
全州	曇	天津	曇
木浦	雨	靑島	晴
群山	曇	上海	曇
雄基	曇	新京	晴
城津	曇	奉天	晴
元山	曇	營口	晴
江陵	曇	大連	晴

『절머지는』秘話

ホルモン問答

(『ホルモン』의世界的權威 伊藤博士를차저서……)

『先生、『옛…』하고氣合을울친、찰나에、갑자기『절머지는』姿態로나타나게되는術法은 업슬까요?』

『하하……자네그거는無理일세。그것보다도절문아가씨들은엇지하야서 아름다워지는가를 아는가? 그것은 다른게아니라『卵胞ホルモン』이一種의神秘的作用을 이르키여 그것이彈力잇는아름다운『處女美』를나타내는것일세、그런데二十歲를넘는때로부터조금식衰退하야지며、三十歲、四十歲때가되면 漸漸皮膚의彈力이업서지는것일세……處女時代에彈力잇는 皮膚가 주름잡히지며……容色이衰退하게되는것은 모다『ホルモン』이 缺乏하게되는 까닭일세』

『그러면그『ホルモン』이란것은大體어떠한性質을가지고잇는것인가요?』

『第一에優雅한女性을만드는 作用이잇고、그것보다도 요긴한點은『절머지는』現象이지요。即『卵胞ホルモン』을 注射하면는 皮膚는彈力을 이르키고 血色을恢復케하며 文字그대로의 절머지는 것일세。그러나 最近에와서『ホルモン』을皮膚에 바르게되여도 事實을알게되엿는데―『ホルモン』을皮膚에 바르게되며는 잘吸收하야서 豫想外의 效果를 나타나게 되다는點일세。』

『先生님、먹으면안될까요。』

『勿論 안된다는것은 아닐세 그러나 內服한다고하면 內臟中에서 여러가지로 障害를밧게되고 效力이 적게되는것일세、『나의研究한바에依하야서는 皮膚에다가 바르는것이 第一效果的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면、先生님 그方法은?』

『그것은『クラブ綜合ホルモン』이 第一理想的이라네。이것은 專賣特許의 方法으로서 精製한『卵胞ホルモン』에다가 다시數種의 貴重한『ホルモン』을 配合한것으로서 只今까지의『ホルモン』보다는 五、六倍의强한 效力이잇는 外에皮膚에서 完全히 吸收하게되는것일세。』

『그러나『ホルモン』을皮膚에다가바르는것은아모래도미듬성이업는데요』

『안일세、絶對安心하게、例를든다면『クラブ綜合ホルモン』을 强度로써含有한『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를 색기、얼굴의皮膚에다가발라서試驗하야보앗는데、三日째는벌서 容貌가달너젓고、一週日後에난 바르지안은곳은 그냥잇섯고 바른곳은벌서『엄지원숭이』가 되여잇데그려……』

『絶大한效果입니다그려。『ホルモン』을過度히使用하야서、病에걸엿다는말을못드럿는데요』

『絶對로그런法은업네。一般藥品이라면 業에따라서長期에亘하야서 使用한다고하면 副作用이되든지 中毒을이르키든지하지만은『ホルモン』에限하야서난 그러한念慮는絶對로업네。』

『그것은어째서그러합니까?』

『왜그러느냐하면『ホルモン』은 이미人體에는自然的으로存在하고잇는것이니까、……『살』에바르게되며는大端히效果가 잇는것일세。皮膚의『ホルモン』의補給作用을하는것이니까 特上等의化粧料도되는것일세。손가까이잇는『クラブ美身クリーム』이라든지『クラブ乳液』이라든지『クラブ白粉』其他의『クラブ』化粧品을使用하면는 아름다운化粧이될뿐아니라『안칼』부터아름다워지는…』

『절문아가씨들이 使用한다고하면、어린애처럼되지안흘까요?』

『하하……조곰도걱정업네。더욱더욱 健康하야지며아름다운魅力이 增加하야질뿐일세。』

『ホルモン』의『절머지는』大評判을가진

クラブ乳液 五〇錢、六〇錢

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 一圓五〇錢

クラブ美身クリーム 三〇錢・四〇錢 五〇錢・八〇錢

クラブ白粉 (粉、煉、水、はき白粉)

악질을 전멸합시다

림질치료원리 (治療原理)

림질은고노콕겡이라는림질균을가진남녀의성교(性交)로인하야그균이생식기로드러가서전염번식하야생기는병인대림균은특히강렬(强烈)하야뿌리가(淋絲)성하게뻐처서번식하는성질임으로날이갈사록신체내부로기피드러간다그럼으로방광염(膀胱炎)고환염(睾丸炎)『상중녀자궁내막염가튼위험한중세로변하기쉽다그런대병균이사람의피부로드러오면혈액(血液)에잇는백혈구(白血球)가그병균을마어업새기위하야곳맹렬히싸홈을하는것이다만일그균이강하면백혈구가도리혀죽게되나니이죽은백혈구가곳고름이라와가티신체속에는균을마어업새는힘이천연으로잇슴으로조금만힘을도아주는약이합리적(合理的)으로드러가면당연히병균을전멸할수잇다이러한병리가(病理)판명되야다년연구한결과림질치료원리(淋病治療原理)가발견되엿다

一、림균은뿌리가깁히박히는성질임으로내부로부터그뿌리를아조업새지아니하면조곰에새싹이다시나옷시병이다시도지게되야거근하지안한다

二、사람의신체에는천연적으로혈액중에백혈구가잇서서균을마어업새는힘이잇슴으로잘도아주는약제가조곰만드러가면균이깁히박힌곳까지드러가게할뿐아니라전부죽일수잇다

三、위장으로흡수안하면약은염증(炎症)을아물게못하여도리혀염증의

四、약이위장으로흡수되여신체각부를거처방광요도로한점막을(粘膜)상하게한다

五、외처로국부에넛는약이나주입세척하는법은잘못하면병균이더욱깁고도리혀약을피하야점점속으로드러감으로의험하다하야들며깁히박힌병균은절코전멸되지안하야다시재발되고또한그병균은더욱강하게되여악성으로변한다

내복약을먹어서생리작용으로신체내부에흡수되여속속드리백힌균과뿌리를멸녀죽여야되다약이혈액중의백혈구와합력(合力)하야천하무적(天下無敵)의강병이되여아모리완고악성의림균이라도씨도남기지아니하고전멸식힘으로다시후환이업시깨끗하게되다결국합리적고귀한약은내복약구로벨을써야한다

구로벨 일주일분이 오원 이다(일주일분이 오원이라는약은내외국을통하고드물다)

다른약은대개一、二원으로부터二、三원이다

왜그러냐하면 구로벨에는 엇기어려운고귀한약제가만히드러갓으로 그럿다

결국 병이 속히 치료되는것이다

값싸고오래먹는약은 효력이업스니 결국값시싼것이아니라 병만점점더심하야지고 돈만거저내버리고만다

병은조곰더무서워진다

림질에대하야

전염한지 어삼일 또는 열주일내에 발생하며 한달후에 발생하거도한다 중세는 년령체질에따라 다르나대개는 젊은이는로인보다 중세가 심하고 급하다

◎급성 림질에도 두가지가잇스니 전부뇨도염(前部尿道炎) 후부뇨도염(後部尿道炎) 여다 ◎전부뇨도염은 전염된지 열주일이내에 오좀구멍이 부어 부르트는고로 몸시 선꼿치 따거웁고 오좀에 자조 마려웁고 방울방울 떠러지고 아프고 쓰리고 칼로 점이고 고초가루를 뿌린것갓고 그리하야 선꼿까지 부어서 열이나고 가래톳이스는일도잇다 몸이 피곤하고 음식맛이 젓치고 신경쇠약이되고 잠을못자고 아푸고 심하면 피고름이 나기도한다

◎후부요도염(後部尿道炎)은 二三주일되도록 부주의하면 림균이 속으로 들어가셔 오좀구멍이 점부 헐게되는것인대 오좀이 자조 마렵게되고 신이 끈허지는것가치 아푸고 심하면 오좀이 안나오는일도 잇고 심히 아푸며 홍문까지 빼치고 무지룩하며 신열이 삼십팔구도 나는일도 잇는데 대개는 불합리한약과 치료로 이중세로 변하는 일이만타 그럼으로 신에서고름이나고 아푸거든 한시각이라도 속히 약을 써야한다

◎만성림질 은 급성을 잘고치지아니하고 몃칠지나면 만성으로변하야 병세가 오래가고 별별식성으로변하는법이다 여중세에는 오좀이 혼탁하고 림사(淋絲)가잇고 아침에 일어나면 오좀구멍에 고름이 말러붓고 짜면 고름이나고 심히 아푸지아니하나 고름이 독하야 눈에드러가면 눈이먼다

그리고 심히 아푸지 아니하나 때때로 아푸고 가려웁고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확끈확끈하고 찌뿌드드하고 오좀눌때는 오좀이 두갈내로 나오는일도 잇고 그리고 몃해후에 요도협착증(尿道狹搾症)이 되야 오좀동이 러지게되는일도잇다 림사(淋糸)는 곱부에 오좀을 밧어서보면 실가치 뜨기도하고 벌레가치 동글한것도잇다 곱부둘을가지 오좀을 밧어 처음 곱부에 림사가잇스면 전부(前)요도염이 오나종 곱부에잇스면 후부요도염인대 후부요도염은 림균이 깁히드러간것이다

◎이러하신분은 구로벨을 쓰시오

특제 구로벨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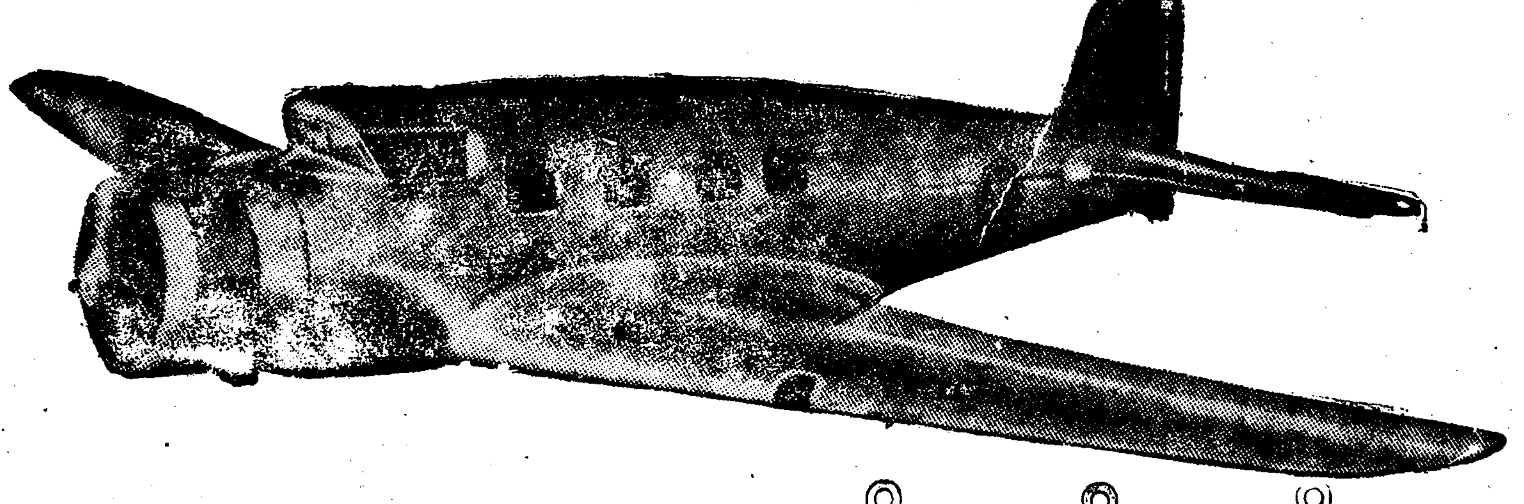
남녀만성림질 (男女慢性淋疾) 림독균대하증 (淋毒菌起因帶下症)竝製外、요도염 (尿道炎) 고환염 (睾丸炎)、방광염 (膀胱炎)、섭호선염 (攝護腺炎)、여자오종소래(女子消渴)、관절염(關節炎)、자궁내막염(子宮內膜炎)……竝製外、라팔관염(喇叭管炎)、란소염(卵巢炎)、림독성제증 (其他淋毒菌起因諸症)

약갑 특제 구원 만성용오원 급성용사원이오 오원이나 삼원이나 다일주일분이오 위장을상하지아니합니다

京城西大門入口 (제일큰배약양관)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③三三四番 振替京城四九五〇番



약효가제일 급속합니다

림질、대하증、냉병、명약 구로벨

眞實한對話 (진실이 이약이)

客 림질에 조혼 약이 잇다지오

主 네 잇습니다 구로벨이라는 약입니다

客 잘 듯습닛가

主 네 잘 듯습니다 약을 쓰신 분들이 잘 증명하십니다

客 광고로도 잘 보앗습니다만은 광고와갓치 약이 실상 좃습닛가

主 물론입니다 광고도 한두번 말이지 오래 약이 부실하고야 엇지 광고를 내겟습닛가 만일 약효가 업고 광고만내면 처음에는 혹 광고를 보고 쓰게되나 그다음에는 그광고가 효과를 일케됩니다 암만하야도 약효가 조아야 그광고가 정말 생명이 잇는 광고가 되는것입니다

客 참 그럿켓습니다 그러면 한제수십시오

主 네 감사합니다

客 그런데 구로벨을 쓰면 웨 정은 안상합닛가

主 그런 염녀는 업습니다 약효가 속하고 약가운이 강하고도 위장은 상하지아니하는 것이 구로벨의 특장입니다

客 태중에 써도 좃습닛가

主 그 병이 잇스면 수태도 못하거니와 만일 태중에 그병이 잇스면 무서운 아해에게 병독이 전염됩니다 이약을 써야 합니다

客 그러면 한제 더 수십시오 우리네외가 갓치 써야 하겟습니다

主 그러십시오 이약을 잘 쓰셔서 고그 무서운 병을 속히 고치서셔 건강한 행복을 누리십시오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本町四丁目六 神崎神聖堂支社
黃海道海州邑南京町一六〇 宋淳炯
京畿道水原郡邑南昌里七四 李光澤

市內代理店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仁寺町 富仁藥房
阿峴町 春山藥房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鍾路二丁目 白楊堂

地方代理店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忠南天安邑內 徐光年
咸南端川郡汝海津 鶴仙藥房
咸南永興郡宣興面 [illegible]
咸北漁大津 閔泳[illegible]
慶南鎭浦 朴基[illegible]
咸南咸興府本町通 三省堂藥房
咸北惠山線水驛前 永生堂藥房

特約店
京城府淸凉里町一二九 德仁百貨商會
京畿道仁川府外里 中和堂
同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同 金浦邑 回生堂藥房
同 始興郡新東面平原里 李[illegible]英
同 永登浦 裵振[illegible]
同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illegible]
同 開城府都橋市 ヘヤシ藥房
同 水原郡鄕南面發安市 金佑鉉
同 江華郡良道面道場里 韓仁奎
同 漣川郡南面華山里 李殷傑
同 水原邑 金德根藥房
忠南大田邑大東町四九 朴[illegible]均
同 淸州邑 鄭北[illegible]藥房
同 洪城邑 李康世
同 成歡驛前安城商店 宋千逸
同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同 公州邑錦町 權明順
忠北淸州郡米院面岐岩里二〇九 華信藥房
同 溫陽邑 溫陽藥房
同 潭陽郡火田面谷城里 丁判[illegible]
同 木浦府竹洞木浦劇場前 玉山堂藥房
同 海南郡邑內 千珍玉商店賣藥部
全南順天邑金谷里 金[illegible]
全北金堤邑內 趙[illegible]
同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東[illegible]
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善[illegible]
同 茂朱郡赤裳面北倉 柳延[illegible]
同 錦山郡王宮面興岩里 金用[illegible]
慶南京釜線勿禁驛前 大永[illegible]
同 咸安郡安義面錦川里 崔光[illegible]
同 河東邑 濟[illegible]藥房
同 晋州昭和町 大明堂 金生堂藥房
同 晋州邑明治町 金三[illegible]
同 晋州邑日出町一〇九 鄭一元藥房
同 六三 金成藥房
同 大黑[illegible]藥房
同 ツバメ藥房
同 馬山府(榮町) 天和藥房 李[illegible]
同 馬山府石町 五行堂藥房
同 釜山府寶水町 韓明[illegible]
同 蔚山郡青良面開谷里一六 孫秀[illegible]
同 居昌邑 章[illegible]
同 蔚山郡凡西面斗山里 朴[illegible]
同 密陽驛前 松山堂藥房
同 南海 華[illegible]
同 泗川郡西浦面舊所里 金[illegible]
慶北東成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朴[illegible]
同 大邱府京町一丁目一八 大安堂藥房
同 尙州郡邑外畓里 [illegible]
同 善山邑本町 金亨[illegible]
同 醴德郡丑山面[illegible]里 金春[illegible]

同 釜山邑內 [illegible]
同 佛國寺驛前 [illegible]
同 大邱府達城町三〇 [illegible]
同 淸道郡[illegible] [illegible]
江原道金化邑 [illegible]
同 江陵邑內 [illegible]
同 原州郡原州面化月里一〇四 [illegible]
同 金城驛前 [illegible]
同 原州郡[illegible] [illegible]
同 平康郡[illegible]驛前 [illegible]
同 鐵原邑中里 [illegible]
同 洪川郡化村面[illegible]里 [illegible]
黃海道載寧邑內 [illegible]
同 沙里院驛前 [illegible]
同 鳳山郡德在面[illegible] [illegible]
同 海州邑北旭町二五七 [illegible]
同 信川郡龍門面[illegible]里 [illegible]
同 延白郡[illegible] [illegible]
同 海州邑內北幸町三六 [illegible]
同 安岳邑 [illegible]
同 載寧邑 [illegible]
同 南川驛前 [illegible]
同 沙里院本町通 [illegible]
平南平壤大和町通 [illegible]
同 大同郡斧山面中二里 [illegible]
同 肅川驛前 [illegible]
同 龍岡郡海雲面城峴里 [illegible]
同 龍井里 [illegible]
同 安州郡立石市活信藥房 [illegible]
同 平壤府南町四一柳原藥房 [illegible]
同 平壤府橫口町四〇 [illegible]
平北碧潼邑內 [illegible]
同 滿浦線香山驛前 [illegible]
同 龍岩浦農民共生組合 [illegible]
同 宣川邑內川北洞 [illegible]
同 鐵山邑內 [illegible]
同 江界郡公北面香河洞 [illegible]
同 熙川郡邑上洞八五 [illegible]
同 宣川郡川南洞 [illegible]
同 新義州府彌勒洞新義州 [illegible]
同 東京館驛前 [illegible]
同 定州郡大田雲鶴洞 [illegible]
同 鐵山邑內 [illegible]
同 雲山郡北鎭市 [illegible]
同 雲田驛前 [illegible]
同 新義州府眞砂町 [illegible]
咸南新興邑內 [illegible]
同 定平郡新上驛前 [illegible]
同 永興郡古寧面三峰里一四七 [illegible]
同 豊山邑內市通義信商店 [illegible]
同 長津郡郡內面上梅山里 [illegible]
同 北靑郡下車日面萬景市 [illegible]
同 新高山驛前 [illegible]
咸北城津港旭町 [illegible]
同 城津港旭町 [illegible]
同 淸津府新岩洞 [illegible]
同 城津郡鶴南面[illegible]洞 [illegible]
同 朱乙驛前 [illegible]
同 明川邑明川洞 [illegible]
同 雄基港本町 [illegible]
咸南北靑邑壽世局 [illegible]
同 北靑驛前 [illegible]
同 咸興府本町 [illegible]
同 元山府南村洞二四 [illegible]
同 元山府廣石洞一 [illegible]
同 元山府 [illegible]
同 甲山郡惠山鎭本町惠山堂藥房 [illegible]
同 興南驛前九龍里 [illegible]
咸北吉州邑內 [illegible]
咸北雄基上本町 [illegible]
同 會寧邑大正通 [illegible]
同 雄基邑本町 [illegible]
同 雄基邑本町三五七 [illegible]
同 雄基邑本町四〇三 [illegible]
同 羅南邑初瀨町一一三 [illegible]
同 羅南邑生駒町五七 [illegible]
同 城津邑旭町四一三 [illegible]
名古屋市南區中山町一ノ一八 [illegible]
島根縣美濃郡近見上村小原 [illegible]
安東縣市場通九丁目三番地第四號ノ四 [illegible]
間島龍井市大通路 [illegible]
京畿道陵谷驛前 [illegible]
京畿道素砂驛前 [illegible]
京畿道永登浦町五三三 [illegible]
忠北丹陽郡上岡面金谷里 [illegible]
全南群山府藏財町一四三ノ二 [illegible]
全北裡里邑內南中町四六二 [illegible]
慶南馬山府富町市場 [illegible]
咸北明川郡下加面洒浦區內 [illegible]

支社設置引受決定

黃海海州地方 宋淳炯殿
京畿道水原 李光澤殿
決定外十數氏申込開業同時發表함

●各道●府●廳●所在地●에서 支社經營하실 有力한 新進●事業家● 大特典募集支社希望이라明記하시고規定書請求次第無料郵送함

京城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謹告

特約店(특약점)以外(이외)에는 절대로 화리나 특전이 업습니다

―아츰―

애기네 눙눙이도 함부로 주지말일

요사이과자는 흔히벌레의집

신선한실과를주도록

어린애기들에게 군것질은 나쁘다는것은 다시 두말할 여부가 업지오만은 킹킹거리고 버채는 애기네들에게는 아모래도 용용아로 입을 틀어막을수밖게 업습니다 더구나 어린애기들은 무럭무럭자라는터로 먹기도 자조먹어야 되는만큼 어른과가티 하로세끼의 밥만가지고는 셈이되지 안습니다。그러면 어떠케든지해서 끼니외에 주는것도 적당한물건을골라서 적당한시간을 정하야노코 주어야합니다 그러치안해서는 그야말로 군것질이되야 속도 탈을내고 버릇도버리어 백해가 잇슬뿐이요 일리가업슬것이올시다。

애기네들의 눙눙(간식)로는 대체 함수탄소(含水炭素)가만흔것이 조코 담백질(蛋白質)이나 지방(脂肪)이 만흔것이 조치 안습니다。함수탄소는 담백질이나 지방보담 첫재로 소화(消化)도잘되고 둘째로 구미를 도드기때문에 원끼니의 밥맛을 잃치 안코 잘 먹을 수잇게 되는 까닭입니다。그래서 어떤것이 조흔고 하면 카스테라 면보, 비스켓, 칼케트의 종류와 실과의 종류가 조흔데 그역시 철을 보아 가면서 선택하지 안해서는 안됩니다。위선 요사이가튼 때를 장마철에는 면보와 맛이변하고 비스켓도 버러지가나기 쉬운 것이라 그런것은 도리어 재미가 적습니다。그런데 제일 주의 할것은 속을 너흔 물건입니다。그속이 크림이든 초코렛이든 더군다나 팟이든 어느것이든 전부 쓰지못합니다。

우는대로 달라는대로 주어다가 한정이 업는 노릇이니까 마치 끼니처럼 시간을 정해 노흘수밖게 업는데 나히딸아 먹는 분량도 다르니까 거긔에는 나히를 참작하는 것이 합당한 방법입니다。두살서부터 세살까지는 오전 열시에 한번 오후 세시에 한번으로 두번이 가장 합당하고 그보담 큰 애기는 오후세시에 한번으로 단 한번이 가장 합당하지만은 조석의 시간을 보아서 그 시간은 변동하는 것이 조코 또 늣게잘때는 저녁후로 한번줌직 것입니다 처음부터 일정한시간에 주어 버릇을 하면 공연히 아모때나 달라고때를 쓰지안니다。발끗이어른이 다니며 조흔데를 골라야 합니다。그런데첫재로 만히팔리는 가게에 가서 사는것이 조흐니 그래야 신선한 것을살수 잇습니다。둘째로 유리조히에 싼 것이 정해보인다고 더퍼 노코 살것이 아니나 그런 것이 녀름에는 더 상하기 쉽습니다。셋재로 버러지가 안 나고 맛이 변치 안 하얏더라도 무쟁이가 쓴 것은 일체로 조치 못 합니다。왜 요사이는 수박이랑 배랑 복사랑 실과가 만치 안습니까? 그런것은 비타민도 만코 조치 안습니까? 빠나나도 물론 조호되 녀름에는 썩기가 제일 쉬워서 그것이 험입니다。포도가튼 것도 씨만 주의하면 해롭지 안습니다。도대체 풋것만 아니거든 상한 것만 아니거든 실과를 충분히 주십시요。사탕스부스러지보담 조흔것은 물론이요 면보나 빽스켓보담도 안심이 됩니다。

수박껍질로반찬

수박은 비타민C가 상당히만히 포함되여 잇스니 영양제로는 조흔것입니다 그런데 수박거죽은 먹으면 귀가 미여진다는말도 잇고 또 그말을 밋지안터라도 먹지안코 버리는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먹지안코 버리는 수박거죽은 성분으로보아 새ㅅ빨간 부분보담 차라리 영양가치가 더 잇습니다。그러므로 수박거죽은 버리지말고 깨끗이 씻처서 고초장이나 간장지를 너흐면 여간 맛조흔 반찬이 안입니다。

하여튼 눙눙이를 사는것도 아모러케나살것이 아닙니다。어른도편하고 애기자신도 습관허니 점잔하여집니다 그뿐더러 아모때나군것질에 고만 인이 백히고 보면 몸도 조치 안코 커서 못된방면으로 달아나 버리기도십상팔구입니다。

먼길을거를때

여름에 등산을 한다던지 먼길을 거를 때는 보선이나 양말속에 소곰을 너흐면 피곤해지지 안흘뿐안이라 발에 트는 데 생기지안슴니다

거미 (二)

―명주실짜든처녀의넋―

康承翰

이래는 동안에 옥순에게 명주짜는재가 다섯해가 지낫습니다。그동안 부지런히 명주를 짯스므로 나히만흔 그동리 색씨들도명주짜는것은 옥순이를 따르지 못하엿습니다。그리하여 옥순이의 솜씨는 그동리에 뿐만아니라 이웃나라에도옥순에보다나흔재주 가업섯습니다。옥순이가명주 잘짯다는소문을듯고 하은색시들이 내기를하자고와섯스나 옥순이하테 모두지고말엇습니다。그런데 어떤날 옥순이에집에는도 명주짜는 내기를하려 온사람이 아니라 하눌나라의 천사엿습니다。

『옥순이 네가 명주를 잘짠다지?』

천사는 이러케 물엇습니다。옥순이는 공손한말로

『아니에요 무어 별로 잘짠다고 할것이업서요。』

하고 대답하니까 천사는

『아니야 아니야 네가 명주잘짠다는 말은 벌서 오래전부터 들엇서! 참 너는 재조가 만흐이야! 얘 그런데 너 나하고 명주짜기 내기를 하지안흐련?』

하엿습니다。옥순이는 천사에게 조금도 진마음이 업섯습니다。도리혀 천사를 지워주려고 아조 단단히 마음먹고

『아 그러세요나는 그러케 잘짜지못해요。그러나 매일 우리어머니에게 배운탓으로 남에게 저보지는 안헛서요。』

하며 내기하기로 허락하엿습니다。

옥순이와 천사가 명주짜기 내기한다는 소문이 퍼지자마자 구경꾼이 밀물처럼 만히 몰여들엇습니다。너무구경꾼이 만히몰여 옥순네집은 좁아서 뜰에서 내기를 하게로하고 뵈틀(명주짜는기게)을 뜰밧에다 내다 노핫습니다。내기는 명주 만히짜고도 곱게짜는 사람이 이기는것으로 작정하고 마츰내 옥순이와 천사는 뵈틀에 올라안저 명주를 솜씨잇게 짜내기시작하엿습니다。

옥순이는 천사에게 저도 별로 부끄러울것이 조곰도 업스니까 마음을 턱 노코 곱게곱게 명주를 짯지만 천사는 옥순이에게 지면 크게 부끄러운 일이니까 매우 가슴이 설레고 두군거렷습니다。

『어쩌문 옥순이를 울젹곳하게 지워줄까?』하는 생각때문에 머리가 뒤숭숭해지고 손이 떨려 천사는 제대로 명주를 짤수업섯습니다。과연 소군이 고개를수기고 정성스럽게 명주를짜는 옥순이를보고 어질것갓다고 구경꾼들은 떠들엇습니다 그럴사록 천사의손은 떠더지고 떠더지엿습니다。그러는동안에 시간이다되며 뵈틀에서 명주짠것을 떼엿습니다。떼여보니 옥순이가짠명주는 천사의짠것보다 더고흘뿐더러 길기도 두곱이넘엇습니다。이것을보고 구경꾼들은『와―』하고 떠들며 옥순이를 칭찬하엿습니다。

이러하여 경승은 천사는 약이올라 견딜수가 업서서 옥순이의손에서 옥순이가짠 명주를 빼아서 갈갈이 찌저내버리고 勃勃하여놀로 올라가버렷습니다。

명주를 찟긴 옥순이는 울고불고 슬퍼하엿습니다。그러나 갈갈이 찟진명주가다시 고와가몽 명주업섯습니다。아모리 천사를 원망하여도 아모소용이 업섯습니다。그런지 몃칠후 명주짯기일이 너무슬퍼서 옥순이는 뒷동산에 어머니도 몰래 올라가 나무에 줄을걸고 거긔 목을매여 죽어버리고 말엇습니다。

천사가 옥순이의 죽은것을 보앗습니다。옥순이가 죽기까지 할줄은 몰랏든 천사는 곳 자기의잘못을 뉘우치고 옥순이를 그대로 땅에 무더버리기가 참아 아까워 옥순이의몸을 거미로 변하여 혈생동안 나무가지와 풀쪽에 명주실가튼 줄로 뵈틀까게 만들엇답니다。

여러분 거미줄이 명주실가들 가리 안습디까? (곳)

童話를 募集합니다。조흔것은 여긔에 揭載합니다。보내실때는 學藝部로 보내십시요。

가적의학

결핵성부고환염

問 금년이십칠세귀흔남자이온대 한달전부터 우편부고환(副睾丸)이 압흐기시작합니다 동통은 그리과치는 안흐나 기분이 조치못합니다 몃해전에결핵을 알엇스니 이것도 결핵과는 관게가업슬까요 그치료법을 아르면 가라처주십시요 부고환염을 아르면 생식능력도 업서질까요 또는 정도문제일까요 가라처주시기 바랍니다 (中和 一讀者)

答 결핵성부고환염이것갓습니다 속히수술을 하여야됩니다 다생식능력에는 상관이업습니다 그대로두면 조치못할것이며 더구나 한번결핵에 걸인일이 잇섯스니 안심이못됩니다 또는한편으로 영양을충분히 취토록하시옵소서 (聖母病院長 朴秉來)

설사와혈변

問 금년아홉살된소년인데 약오개월전부터 설사가나기 시작하야 하로에사오차납니다 뒤를보며붉은피가나고 체질도약합니다 병명과치료법을가리처주시기 바랍니다(新生)

答 오개월전부터하로에사오차식괴똥을누다하니 대개『아메1바적리』인것갓습니다 그병을그대로두면 간장(肝臟)에고름이들기쉬우니 속히검사치료케하십시요 치료는가정에서하기어렵습니다 내복으로는『야토렌』等을 『피리호름』이라약을복약하고 또『엽산에메친』이란 주사를 하여야됩니다 체질이약한고로 약분양의관게가잇스니 의사에게치료를바더야됩니다 (聖母病院長 朴秉來)

세게에서 제일큰젓통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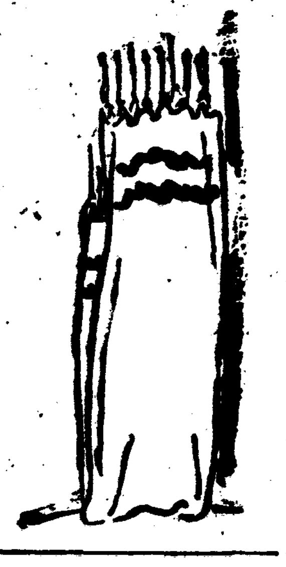
―그나마십구세처녀가―

열아홉살되는 꼿다운 처녀가 세게제일 큰젓통을 가지고 번민으로 날을 보내다가 의학의 힘을 빌려 곱다라케 곤처가지고 번민을 해소시켯다는 이야기가 잇습니다 금년 오월 봉천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엄청나게 큰 젓통을 두손으로 부둥켜안고 입원하려온 만주국처녀가잇섯습니다 그사람은 길림성 덕혜현(吉林省德惠縣)출생의 왕귀영이라는 열아홉살먹은 그녀로서 웬일인지 젓통이 작고만 커저서 자택에서 온갖굿을 다 해보고 약을써보앗스나 보람이 업시 점점 더커지기만 한다는것입니다 이젓통은 세게에서 제일 큰젓통으로 동의과대학에서도 전에 업는 이러사적인 젓통은 겨우열흔 동안에 커진것이라하며 동의대의 절개수술로말미아마 감쪽가티업어지고 이개월동안의 치료로 곱다라케 나허서 그처녀는 밋친듯이 반겨하엿다고합니다(사진상은큰젓통한는 수술후의처녀)

보지못한 진기한 병이라하야 연구해본결과 아모런 진기한것도 아니고 녀성이 성숙기되면 자극을 만히바더서 제일 연약한 세포조직의 젓통이 커진다는것은 아모 진괴한것도업는 평범한 법칙이며 더욱이 그 체질, 음식, 환경등의 관게로 말미아마 기형적으로 발달하는수가 잇는것이랍니다 이처녀도 이러한점으로 볼때는 그다지신기한것도아니나 이것은 근래에 드문 큰젓통인것은 사실이랍니다 젓통의 중량은 오른편젓통이 사천사백그람 외편젓통이 사천그람이라는 엄청난것으로서 십년전프스톤 박사가 발표한 외편 구천그람 오른편 오천사백사십그람에 비하면조금적은것이나 좌우간 현재에잇서서는 세게제일의 큰 젓통이라합니다

"요새는…… 땀을만히냅시다

건강을위해서조흔일"



여름에 땀이나는것은 예사사람인만큼 만약 여름에 땀이나지아니하면 그것은 도리혀 보건상(保健上)으로 낫분것입니다。왜그러냐하면 여름은 긔온이 노픈때문에 혈관이 예충혈이되고 몸이 더워지는 것입니다。그러므로 몸에서 땀이나야만 몸에서 체온이 빠지고 조절이 잘되여서 시원하게되는것입니다。더구나 땀은 신체의 신진대사를 잘식혀서 몸속에잇는 불필요한것을 분비시키는 공효가 잇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신체에서 어데가 땀이 제일 만히 나느냐하면 신체의 굴곡되는데에 한선(汗腺)이 제일 만흠으로 겨드랑이나 오금밋치나 코ㅅ자위가 제일 만히납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땀이 만히 나다고하지마는 그것도 체질에 따른것으로서 겨울에한발을 여으면서도 땀을흘리는 사람이잇고 아모리 더운데를 다라도 그다지 땀을 흘리지 안는 사람도잇습니다。그러나 땀을 만히흘리고 적게흘린다고해서 물론 그사람의 체질이 튼튼하니 약하니할수는업는것입니다。

살찐사람이 비교적 땀을 만히 흘니는것은 물론 피부면이 파리한사람보다 넓고 따라서 한선이 만흐며 동작을하는데도 파리한사람보다 힘이 더드는때문입니다。가령땀이라도 도한(盜汗)이라고 하는것이 잇는데 이것은 절대로업고 신경쇠약이나 영양이 부족하나 폐결핵환자가튼이에게 만흔것입니다 땀은 생리상으로보아서 곳치처버려야할것이나 만약 오래두면 땀속에는 염분(鹽分)이잇는때문에 한선이막혀서 땀이 잘나지못하고 따라서 피부가 매우 까츠러집니다。혹히 부인네들이 땀을 더만히 흘린다고하나 그런병은 절대로업습니다。그리고 냄새가나는것은 액취(腋臭)라고해서 겨드랑이에서나는 특수한냄새가잇스나 보통땀에도 산성(酸性)과「알카리성」이 섞겨잇는만큼 땀냄새가나는것이니까 누구던지 여름에는 땀이 나는대로 잘씻처서 몸을 청결하게 가질필요가잇습니다。

이러케 여름에 땀이 나는것은 생리적으로 보아서 자연스러운 작용인만큼 소변이나 호흡으로서 신체속에잇는불필요한것을 내여버리는것과가튼것입니다。그럼으로 치운겨울에는 땀이적고 소변이만흔데 비해서 녀름에는 땀이만히나는때문에 소변이 적은것입니다。

그럼으로 여름에는 수분을 만히마시고 땀을 만히나는것이 조흡니다。그러나 외출을하거나 남의집에 방문을갈때 땀이 너무 만히흐르는것은 좃치못한만큼 그예방으로는 될수잇는대로 수분을 적게섭취하고 동작이나 거름을 걸을때 초조하거나 황급하게 하지말고 될수잇는대로 냉정한 정신을가지면 몸에 땀이나는것도 다소간 완화가되는것입니다。여긔서도 사람은 마음하나 먹기에 달렷다는것을알수잇습니다。

애기들이친할 여튼시냇물

한 여름 울탈업시 나면 가을에는 살이찐다

어린아드님과 딸을가지신분들은 귀중한어린이의 건강을 위하야 이여름에 특별히 주의하시지안흐면안됩니다 몸이 튼튼해진다는것은 하로나이틀동안에 되는것이 아닙니다。그러나 몸이 약해지는것은 잠간동안의부주의로 말미아마일어나는것이니 건강하기는어렵고 약해지기는 쉬운것입니다 떠옥어린이의건강은 가을철에제일고장이 만히나는것입니다 그럼으로 가을철을압두고 어린이의건강을모도하기위하야 지금부터준비하지안흐면 안될것입니다

어른도 그러하거니와 더구나 어린이에게는 몸을튼튼히하라면 첫재대긔(大氣)를 자조접촉시기는것이 제일입니다! 선듯한 그늘이나 겨르지안흔 내ㅅ물가에 자조 내여보내되 볏살이 짤짤끌는데 그냥내여보내는것은 해롭습니다 그다음에는될수잇는대로의복을 웬게이피며나아가서는 팬티등아리로 빨가숭이를 만드러도 더욱조습니다。그러나밤에는 귀온이 낫과달이고 그차이가 만흔까닭에 밤에는 너무선선하게 재여서는 안됩니다。더웁지안흘정도의 습기업고 얇은 이불을 더퍼주는것이 조켓습니다

여름에는 흔히식욕이 감퇴됨으로 어린이는 제카조화하는음식만을 먹으라고하는것입니다。수박이나 참외나 그럿치안흐면 청량음료등으로 편식하는것입니다 이러할때는 될수잇는대까지는 신선한 고기나 야채등으로 반찬을 만드러서 밥을 적당히 먹도록 힘쓰며 편식과 간식을 차차 하지안토록 습관을 드리게 하시여야 합니다 끄트로 어린이는 흙과물을 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기프롭에는 빠질염녀가 잇슴으로 야튼 물이면 얼마든지 놀도록하며 나무그늘미레서 흙으로 보(洑)싸옹가튼것을 하고놀도록 하는것도 조습니다 그리고 소낙비 나리는 틈이나 마당에 벌거벗고 마틈질치며 비를 맛는것도 더욱조습니다。

우리차지

"소나비"

말짱 하든날이 별안간
어둑 어둑 해지며 찬
바람이 길 바닥의 몬
지를 휩쓸고 다라 난
다。『우루룽』별안간
천동 소리가 나면서
벗방울이 뚝뚝 떠러지
다가 마우 퍼붓기 시
작한다。번개가 번쩍。
그리고 조곰 잇다가
또 우루룽 길에는 사
람하나 안보인다。

(글과사람 곽정모)

胃酸過多

制酸과 鎭痛

ノルモザン錠 (노루모산)

胃·結膜의防護
胃酸의中和吸收
胃液分泌의整制

노루모잔錠特有의 右三大作用은胃酸過多症에對하야 原因的 治療効果를내는同時에 食後에가슴아리 曖氣 溜飮 空腹時 胃腸痛의境遇에 服用하시면 症狀이除去되여 氣分이爽快하여집니다

便秘에効果잇다

노루모잔錠은 또腸의蠕動運動을亢進하는作用이 잇스므로 胃酸過多와併發하기쉬운 便秘에使用하야 催便의効果가잇습니다、

惡酔、宿酔에

過飮하야 氣分이나뿌고食慾不振하는境遇에服用하야 効果가잇고 飮酒前에服用하야 惡酔를豫防하며 飮酒後에服用하야 宿酔를防止합니다、

胃酸過多、胃潰瘍、胃液分泌過多、胃痙攣、胃痛、胃가다루、便秘、曖氣、溜飮、惡酔、宿酔

【價格】一日分 (二〇錢)

發賣元 武田長兵衛商店 大阪市道修町 關東代理店 小西新兵衛商店 東京市本町

銷夏漫筆 【十】
農村과旱水災
湖岩

近日大洪水는 各[illegible]水災를 [illegible]한다. 旱災로 農田가 [illegible]하다가 요새와서는 또水災로 田禾가 가 洗沒하게되엿다。 旱年旱水災가 번거퍼 드는것은 무슨까닭인가. [illegible] 道、堤防가 [illegible]로 [illegible] 廢되데도 多少關係가 잇지아니함가 어쨋든지 農家에선水災보담 도리어 旱災를 더두려워하나니 그는 朝鮮에 올이 바르기때문에 水田에도 흔이 天上水를 힘입게되는바 旱災가 甚하면 이것이 온통全滅되고 만다。 그러나 地下水를 利用하야 灌漑하는 方法도 예로부터 크게 [illegible]되엿슴은 [illegible]年水利工事中에 갓금 發見되는 遺跡을 보아도 넉넉히 證明될것이다。 이로보면 [illegible]도 農事에 [illegible]代 우리들의 想像하는 以上으로 [illegible]되엿은 模樣이다。 그러던것이 高麗後期에 와서 번거퍼 일어나는 內外亂으로 해서 또는 [illegible] 求[illegible]로해서 [illegible]度로 흐려진 田制와 아울러 農業上施設도 아주 [illegible]에 도라가고 말앗다。

李朝의 [illegible]는 農業上에 잇서서도 一時期를 劃하엿다 田土에나에 地主는 여러이 잇서 一年에 小作料를 몇번에든지 徵收하므로 小作人은 매연는 三重四重의負擔을 [illegible]할수 업서서 흔이 夜間逃亡을 하게쯤 되엇다 여러케도 紊亂해진 田制를 바로잡아 모진地主의 손에서 多數의 [illegible]民을 解放한이가 곳 李太祖이엿섯다。 이것이 벌써 政策的으로 그리한것이나 그 動機는 어떠튼지 結果로보아 一般農民에게 莫大한 [illegible]을 끼친것만은 事實이다 特히 世宗大王께서 한층더 農政에 注意하사 農事直說을 編纂하며 測雨器를 創製하야 이것을 理論的方面에 應用하엿슴뿐 아니라 實際에 잇서서도 土地의肥瘠을 따라 田品을 六等에 分하고 年年의 豐凶을 九等에 分하야 納稅의 差를 定하니 이때가、年分의法이 農民에게도 莫大한 利益을 주엇섯다。

農業의大宗이 農業이오 人民의大部가 農民인 朝鮮에 잇서서는 언제든지 國本은 農民이므로 農民의 安定이 곳 朝鮮의 安定인은 말할것도 업다。 太祖의 [illegible]圖도 먼저農民의 마음을 어둠에 엇것고 世宗의 [illegible]도 먼저 農民의 마음을 安定함에 잇섯다。

그러나 李氏以後에 [illegible] 農民의 [illegible]人이 다시 나지 못햇다。 터구나 壬辰亂을 한번 [illegible]고나니 前後七年동안 戰爭[illegible]兵火속에 農民은 만히 [illegible]散하고 農村은 매게 荒廢하야젓다。 山林도 어떠 [illegible]되어 水旱의 不調를 일우켜 農業上에 미치는 影響이 莫大하엿는바 亂後[illegible]로 [illegible]해진 農政과 林政은 이것을 다시 原狀대로 恢復하지 못하고 말앗다。

治山治水를 [illegible]지 못한게 에 때 오래에 이로해서 생기는 旱水災는 갓금 沃土를 不毛化하고 農作을 全滅케하는 [illegible]狀을 가저왓섯다。 이 天災外에 人災라할만한 韓末에는 貪官汚吏의 搾取도 잇섯스므로 農村의 疲弊는 [illegible] 慢性病者와가티 [illegible]復하기 困難하게되엿다。 韓末의 農村疲弊와 農民[illegible]은 韓末의 그것을 되푸리하는 感이 업는바 아니나 다만 外國通商에 依하야 商工 文明의 드러 일난것이 크게 다를뿐이다。 農村우에서는 新文化는 到底허 [illegible] 新文化의 [illegible]어 아니므로 農村이 [illegible] 올따라 農村이 衰退하게되온 도한 自然의 勢이어니와 今後農村의 [illegible]는 果然어느程度까지 이룰것인가 그는지금 안저 [illegible]할수 업다。

學藝

八月創作評 ②
作家的訓練과冷靜한凝視
金煥泰

시드른月桂花 (朝鮮文學) 朴花城 作

全篇을 通하야 作者의 女人다운 보드라운情感이 고요히흐르고잇다。 그리하야 이보드라운情感은 老傳道婦『미쓰빼인』의외롭고 쓸쓸한 ……心…… 境을 잘感得하야 그를 그리는데 어느 程度까지 成功하엿다。 그러나 나에게는 終末에가서 『아! 역시 사람인 내게는 하나님의 말슴보다도 시드른 이 꼿한송이가 더큰 위안을 주는 것이다。』 이러케 속삭이며 朴이라는 靑年이 둔 꼿송이에다가、가만이 입을 대여게 하야 現世와 肉에의 降服을 人生의 勝利로써 主張하고저 하는듯한 이作家의 이作品에 잇서서의 態度(人生에 對한 態度를 말함은아니다)에不滿이잇다。

이作品에 잇서서의 作家의意圖가 現實的 그리고 肉的生活에 人生의 勝利를 意味하는것이라는것을 말하라함에잇섯는지몰으나、萬一그러타면 現實的肉的生活과 靈的生活과의 對照와 그것을 雙方으로부터의 誘惑이 이作品속에나타나 그것보다도 훨신더 ……具…… 體的이엇서야할것이며 그리고야만『하나님의말슴보다도 시드른 꼿한송이가『더큰위안』이 된다는 그속삭임이 悲壯하고 深刻한듯김을 줄것이다 그러나 이作品속에는 그런것이 그러케具體的으로 나타나잇는것이 아니요、다만 現世와肉에對한 鄕愁와가튼憧憬에서오는 쓸쓸하고 외로운心情만이 그려저잇다。 따라서『미쓰빼인』으로하여금 이런心情을 完全히끄지는못하나 하나님말슴속에 살게하엿스면 훨신더 그 과에수님생각으로 꺼가라는努力이 안타갑고 쓸쓸한心情에 同感이 갓슬것이다。 다시말하면 이作品속에서는 作者가『사람인 내게는 하나님말슴보다도 시드른꼿한송이가 더큰위안을 준다는話果를나리지안햇든들 卽 이作家의 解決이엇섯든들 『미쓰빼인』의 쓸쓸함과 외로움이 훨신더 거룩하고깁게 보엿슬것이다

自畵像 (朝鮮文學) 尹基鼎 作

『나』를 背反햇든 영애라는『나』의 愛人이 偶然히『나』의 展覽會에와서『나』의 自畵像을보고 그를 사라다 팔지안흐니까 밤에와서 그것을 훔처갓다는로맨틱한이야기나 構想이 相拙하며 이런作品에 반드시 잇서야할深刻한 心理란描寫도 업서高踏的이라고하엿스나 低級한 通俗性만이 남은作品이 되고말엇다。

그男子의半生記 (朝鮮文學) 韓仁澤

『나』라는 主人公이 採石場에서 前科者라고 解雇를 當하고 行랑방에서 낫다는것、큰돈을 품고 東京을 건너갓다가 十年동안 말못할 苦生만하고 돌아왓다는것、그리고 돌아와서 自己의 父母가 녯날 自己아버지의 상전의 아들인 찬수로 말미아마 非命의 橫死를 하엿다는 말을듯고 찬수의 다리를 부질러 주고 三個月동안 勞役을 살고 나와다는것等 自己의 ……前…… 半生을 性急한 言調로·주섬주섬한 이야기하고 「찬수 채석공장 지배인 그가튼놈의 하대야 다시밧고 무조건으로 머리를 고분고분 하겟습니까」고 悲壯한 決心을하는것으로 말긋을 매젓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 피와 肉體를 가춘 한作品을 보지못하고 피와肉體를 가추지못한앙상한 이야기의 줄거리를 觀念의 옷으로 假裝한 한作品의허수아비를 볼뿐이다。

뿐·아미 (朝鮮文學) 金友哲 作

描寫가 緻密치못하고 지루하다。 훨신 더凝縮되고 簡潔해저야겟다。 그리고 作品속의 [illegible]態를 冷靜히 凝視할作家的訓練이 不足하야 作者의意圖가 그곳에 잇지안흔데도 不拘하고 主人公의 自己陶醉的態度가 作品속에 그대로 나타나우리를 不快하게 하엿다。 作家的訓練의 第一步인 冷靜한 凝視力을 卽 客觀的形象力을 길으도록 힘써야겟다。

서울 (朝鮮文學) 金沼葉 作

完成文人의 無名作家에 對한 野卑한 行動과 非良心的態度를 罵倒하라는데 作者의 意圖가잇섯는듯하다。 그러나 作者는『나』로 하여금 유명한 문인몃사람과 교제를 맺저 그때에한번 무명작가의 쓰라린 굴레를벗고 좀 평탄한 문단의길을 걸어보게 하기위하야 서울에올러가서 어떤 雜誌編輯者와 評論家에게술을바더주며 아첨하는 無名作家로서의 가장非良心的行動을敢行케함으로써 旣成文人에게 보내어야 할 우리의 反感과輕蔑을도리혀 無名作家의『나』에게로 보내게하는 喜悲劇을 演出하고야말엇다 다만 처음의 거리의描寫를 滋味잇게읽엇다는것을말하여둔다。

가래골천덕구리 (朝鮮文學) 金烏風 作

억세고 緻密한構想力을가진作家다。 그리하야 그의題材를 손쉽게 그려나 弛緩됨이업시 調整하며 노흔데 感嘆한다。 그리고 用語도 大端히 豐富하나 對話나 描寫에잇서서 덤어나 의살이만허 도리혀 말의品位를 일코잇는것이 遺憾이다。

× × ×

이달에는 新人金東里氏의『[illegible]』과 林元植氏의『[illegible]』가 아즉까지 印象에 좀남어잇슬뿐推薦할만한 作品이업섯다。 金東里氏와 林元植의 꾸준한努力을빈다。 그리고 『가래골천덕구리』의 作者 金烏風氏에도 期待를 부처둔다。 (끗)

落照

[illegible]學生通信
智異山登陟記 (四)
☆—(第二信)—天王峰의 一夜—☆
藥專 李鶴墩

노괴 數尺에 不過하는 石壘祠堂이올시다 차츰차츰 기여가니 맛참 조고마한 土窟이잇소。아마 이土窟은 몃해前에 올나온 登山者가 風雨를 避하려고지엇든것갓소。地形이 平坦한곳을擇하야 노피約五尺쯤 돌을둘너싸고、그우에는 나무가지로 이어 風雨를 가리웟는데 얼마나 風雨를마젓는지 다넘어젓소。南쪽으로 조고마한 石門을 내엇고 天井은 다썩어업서지고 땅에서는 물이고이오。

K兄!물에빠진 사람거푸이라도붓잡는다드니 이것이라도업섯스면어터케도엿겟소 아마세사람은갓서 凍死를免하지못하엿슬것이오 등에진짐을나려놋코이土窟天井一部를 破壞하야 불을피여 떨리는몸을 禦寒하며 세사람이 이上峰에서 밤을새울일을 相議하오。이사람들은 經驗이잇는지라、하로밤동안 불피울 薪木을 求하자고 主張하오。

우리는 쏘다지는비를 마즈며 薪木을求하러 山을나려가오。上峰近處에는 큰나무는업소 約十町쯤나려오니、左便에 바람에말은전나무한株가보이오。그나무를 벼혀 土窟까지 運搬하엿소。다음에는 풀을버히다 天井을가리우고 흙으로 壁을막고 가마니를깔고 불을모아 밤새일準備를 맛치니 벌서여섯時요。

夕飯을끄내어 시장한 배를채우니、어두움은 漸漸기퍼가며 바람소리 비소리는 왼天地를뒤덥는것갓소。조고마한 石門으로 하날을 내다보니 훳훳헌차게 지나가는 雲霧의사이로 저녁별이 세個 빤작빤작하드니 瞬間에 보이지아니하오。그사람들은 담배만피우면서 智異山에 關한 여러가지 傳說과 자미잇는 이야기를하며 밤이기퍼가는것도몰으오

K兄! 가울하날 맑게개엿슬때에 이天王峰絶頂에서 밤을새이며 직히고잇스면 午前三時쯤 東南間으로 갑작이 한개의 큰별이 나타난다고하오。다른별에 比하면 크고 밝고 불어타는것처럼깜작깜작하다가 한二十分을 지나면 그만살아저 업서진다고하오。이별일홈을 老人星이라고 불으며 이별을보는사람은 長壽延命한다고하야 이별을 求景할려고 이곳에서 밤을새우며 나타나기를기다리는사람이잇다고하오。그리고 무엇보담도 第一壯觀은 日出과 落照의 觀景이라하오。午後四時를 지나면 東쪽日本海水平線저쪽에서 五色이 玲瓏한 구름을헤치고 솟아올나오는 朝日 西쪽黃海水平線저쪽에 기우러저가는 落照가 發揮하는 最後의 光線이야말로 하날과땅 山과바다 구름과물결 明暗과비치 三角에서 四角으로 아여서 數千數萬의 多角으로 線과點과밋紋의 交叉變動함이 이地上에서 玩賞할수잇는 가장 雄壯玲瓏한 極致美일께요。

K兄! 밤十二時를 지나도 하날은 개이지아니하고 雲霧는 더욱기퍼가고 風雨는 더욱그勢가 猛烈하야지오。山미테서 高峽지는 猛獸의울음소리는 天地를 振動하는 비소리 바람소리에 共鳴하야 알어들을수업소。天井에서 새여나리는비人방울이 얼굴에 떠러질때마다 놀내지안홀수업소。

세사람이 번갈너 불을모우며 午前두時부터 조는듯 만듯 두時間동안 睡眠을일우엇다가 午前 비時에는 눈을떳소。落照의 壯觀과 老人星의 神秘함도 보지못하고 日出이나 求景할나하엿드니 風雨는 긋치지아니하고 하날은 개지를안소。

아침다섯時를넘어 하날이 밝어옴을 기다려 나는 土窟을 나와 세번 深呼吸하고 天王峰絶頂西쪽에 屹立한 岩壁에 기어올나갓소。바람에 불녀떠러질가 岩石을 붓들고 간신히 머리를 들어 四方을 展望하니 雲霧는 땅과 하날사이를 完全히 드덥허 天王峰을 둘여싸고잇는 數百數千의 峻峰은 한個도 볼수가업소。

나는 힘것 高喊지 보앗스나 그音波는 곳强한氣流의 振動에 共鳴하야 어데로인지 살아저버렷소 나는 寒氣를 이기지못하야 岩壁에서 기어나려와서 朝飯을 끄내어먹고 바위틈으로돌아다니며 十餘種의 高山植物을 採集하엿소。

K兄!日氣가 晴明하엿스면香爐峰을 차자가서 崔孤雲先生과 碧溪法主와 香寂大師들의 古跡을 求景하고 智異山最大의 寺刹인 大源寺로 向할豫定이엿소 그러나 비는긋치지아니하고 雲霧가기퍼 到底히 碧溪庵가는길을 指望할수업서 다시 碧松寺로 나려오기를 作定하엿소。

天王峰을 뒤에두고 섭섭하게도 다시碧松寺로떠낫소。上峰에서 中峰까지 約二十種의 植物을 採集하야 下峰에다달으니 비는 함바으로 쏘다지오。쏘다지는비를 마지며 碧松寺에 나려오니 우리를 念慮하든 여러중들은 반가히 마자주오。

K兄! 第一信 第二信은 이만끗치려오。探集한 植物을 整理하야 雨晝日晴하기를 기달여 곳碧松寺를떠나 全羅南道로 들어가서 求禮華嚴寺 谷城泉隱寺 太安寺그다음에는 全北南原實相寺를들녓다、有名한 七佛庵이잇는 慶南河東雙溪寺를 차자 佛日瀑布 數十丈絶壁에서 떠러지는 甘露水에 沐浴하고 이번智異山登山을 맛치려하오。 發程하면 第三信을드리겟소 七、二八

一隨想一
鶺鴒哀語 ①
禹昇圭

亡妹敬任아! 네가 이 오라비와 서로 갈려서 이름다른 세상으로 떠나간지도 벌서 한돌하고 또 반돌。

네가 婆婆의 괴롬을 이즈려고 永恢의 世界로 거친旅裝을 차리채 떠나가기는 朔風寒雪이 몹시 부러치든 再昨年 섯달그믐하정。

서울서도 貧村으로 이름난 峴底洞막바지 斗屋三間속、좀데좁은 너의媤宅 거는방한구석에서 갑싼人造絹裟衣와 옹이 구녕이 숭숭뚤리진 杉松棺속에 되는대로 뭉처너가지고 行旅死亡者 그대로 運柩해다가 弘濟院火葬塲火口에 집어처너튼 當時의 景慨스럽든 情景! 이 오라비의몸이 너간길을 뒤밟어 따르기前까지야 내 설마 이처질것이냐!

出嫁한지 다섯해도 채다못돼서 스물둘이라는 셋파란나이로네살먹이와 두살먹이딸 姊妹를唯一한 遺産衆血養으로 끼처바든채 寡夫當한후 哀絶氣絶 嗚咽하든 그큰몸寡婦이면 마저 不慮의慘慽을를하고、다시 그이들해여름에는 媤家에서는 唯一의 살림人군이든 네媤叔이 뒤거퍼 作故하면서 네媤家살림사리가 것잡을새업시 敗해드리가자 平生에품파리라고는 서울안악네들의 例常事로하는 바느질삭파리조차 모르고 고히자라난 너로서 孀居의無聊를 씻는다는데 憑藉하고 通義町에잇는 ×××에 까지 드러가지 안헛섯느냐!

변덕구럽기 遺物象이 예로하고 자별스러운 우리의同氣愛를 作戱하노라고 그때 이오라비조차 不幸히도 家運所致로 물에 씨슨드시 ××番하고 弘濟院서 松月町으로 獨南町으로 그리고 다시 平洞으로 樓閣 ××사리를 하든때이라 북바처오르는설움과 쏘다저 나오는눈물을 抑制해가면서 너의××生活을 눌러보고지내지안헛느냐!

『오라버니 제일몸조심 아무 걱정마서요。 아무러면 제한몸둥이 못 살어가겟서요。 그저 오라버니가 우리집안의대들人보이나 한분만 지나간일 생각마시고 잘 살어가실도리나 차지서요。』

내가 네身上을 걱정해서 哀愁에 잠겨잇슬적마다 네가 慰安삼어 덤저준 이한마듸말은내가 입때까지 살어온동안 父母님에게서나 恩師에게서나 또는 어느벗에게서 바든 千言萬語의 敎訓과 忠告보담도 銘心刻骨되여든것이라다。 내가 世苦를 참다못해서 極端의 厭症이 發作的으로 생길때마다 그리고 家族들에게 對한 커다란 義務心을 때에사모치게 느낄때마다나는 네가 언제나 되푸리해서주든慰安辭한마듸 그중에도『오라버니는 우리집안의 대들人보이나……』한 그 句節을 佛典보다도 聖書보다도 더 所重하게 信仰해서 모든 懊惱를 스사로 물리바리고 再生의勇氣를북도다 어더든것이란다。 그리하여 『내同氣!-누이 동생이 저러틋 苦生사리를 하고잇거니、그리고 나가티 낡어빠저서 一文의갑슬내自身조차 認定할수업는 지금의 나나마 우리집안에는 대들人보라거니……』 하는말을 日常座右銘삼어 잡듭기前까지는 佛徒들의 念佛그것과 마찬가지로 되푸리 해오는 것이라다。 너의 在世時에도 그랫거니와 지금도 그러코 또 프로도 나는 네가 빽人속에서 우러나온제 아모修飾업시 그대로 던저준 慰安辭를 信條로해서 살어가련다。

實相 오늘에 내가 어버이들에게 요만치 奉體해서 人子의 길을 과히 妄發되지 안케하고 살어가는것도 네가 生前에준 그 말의 偉大한 힘。 그리고 弟妹들에게 同氣間 友愛를 常軌에서 버서나게 하지안코 내압가림을 해가는것도 오로지 비밥 때문。

亡妹야! 내가 오늘과 가티 얼마쯤 生活의 安定을 어더노코보나 責實一念、내머리를 괴롭게 뒤흔드러노코 빼가저리도록 뉘우침을 주는것은 네게대한 지나간날의 잘못——내오직 不出이되여 내同氣로하여금 ××살이까지 하게햇든가?하는것이라다。

네가 오늘의 나를 봣든면 滿悅은안훗것이다마는 얼마나 그들금넙데데한 얼골、두둑하고묵중한 입술에 벙그레한 우슴을 띄웟것이냐! 그리고 네가 平素에 나를爲해 祈願하든 衷情이 具現된것을 오작이나 自賀하면서 기뻐할것이냐! 一계속一

一漢詩一
『薔薇』=押香
桐岡考選
佳作之四之二
蔚山郡下廂面伴鷗里 寓汕 金澤七

一莖梟梟數尋長
半倚墻腰半掩堂
露盌花唇猩吐血
雨深葉面麝添香
紅鬢染出天孫錦
紫臉啼來漢女粧
不向春風金谷發
聊知世人點年光

寫眞上右、米國文豪『싱클레아·루이스』氏의學位獲得 (左가『싱클레아·루이스』氏、右가 [illegible]의『윌리암·페르프스』敎授。
上左 英文豪『췌스타톤』氏葬儀 寫眞은 知名人士들이運搬하는光景。
下。佛文豪『지ー드』氏露都에 寫眞은『모스크바』市街를 自動車로 달리는『지ー드』氏(後方右、)와作家『피엘·에르버ー그엘』와佛作家『루이·아라공』(前席右)

讀者社交室

▲本人의友人으로 數年間敎員生活을하다가 事情의依하야 辭職하고 獨學中인靑年하나가잇습니다。 已往에 家庭敎師도하여본 關係로 普通學校兒童의 家庭指導를 希望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住所로 通知하야주십시요그리하면 仰訪相議하겟습니다。
市內現底町一九番地 尹深學

▲小生의獨特한 (K. Motelt All Gemeine Chirurgie) 와 婦人科學、或은小靑山外科總論과 交換을 願합니다 有意하신분은 通知하시기바랍니다
全南咸平 廣濟醫院 李秋江

▲龍井村恩眞中學校에在學中인 本校蹴球選手로잇는 第二號氏여!나는 當身을日前에 만나보지못하고온것이대단히 遺憾이오 또 [illegible]나는氏에 [illegible] 그래、나는氏에 [illegible]을 알고시프오 [illegible] 니고[illegible]하시요、市內[illegible]

▲[illegible]女學校一學年 여러분께 여러분中에 여러분과가티△年에入學하신분으로 [illegible]郡 게신분을 [illegible]이잇거든 [illegible]하오나 氏名과只今下宿하고잇는住所를 [illegible]여 [illegible]을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小生이 古典、[illegible]全集 (東北 帝大生) [illegible]本)을 한채가지고잇사오다 [illegible]者諸君中에 [illegible]분께 讓渡코저하오니 有意하신분은 左記로通知해주십시요
慶南浦項[illegible]里九二 [illegible]方生

▲現代文學全集 第十二卷 [illegible]生、[illegible]鳳集과 [illegible]全集第二十[illegible] [illegible]路實篤集을 [illegible]로買收시키다하오니 반가워서하는말이오니 本全集이다-[illegible]하옵거든 直接으로 [illegible]와價格을적어서 左記住所로보내시면 卽買收하겟습니다。
江原道三陟郡三陟邑上里四番地 [illegible]元基

▲壬辰年五月初五(六)日出生의 沈[illegible]아!빨리너의누이에게로오라!그러치안흐면 빨리住所라도 指示하라!未從말고 故鄕陟父를 생각하라
江原道春川郡春川邑[illegible]司里 金顯杜方 沈[illegible]

▲金[illegible]兄이여! 只今부터十餘年前에 泰平서 分手作別하고 仁川府로 올나간後 住所를듯나 十年이넘은 今日까지 아무런消息을 아지못하와 甚히궁금하외다 兄의本欄을 읽게되면 勿論이여니와 仁川府內諸先生께서 金[illegible]氏住所를 아시는분이게시면本欄을通하야 左記住所로 알니여주시면 感謝하겟나이다
平北寧邊郡泰平市 李熙烈

▲金慶昌氏에게 저는昨年十二月頃에서울에왓습니다마는 두분과良子에 行方이未詳이오니 저로는너무나落心하엿습니다 世上事너무나 허황한거야 지금새삼스러게말슴이아니오라 어재든이글을보시는卽時로 게신곳을이紙面으로나 左記住所로速히알여주십시요
京城府鳳翼町六〇 金在順

▲農村에서 朝鮮文化를 考慮하시는 [illegible]하시며 兒童敎育을 指導하시는분! 生은 今年 廿一歲에 中學二年課程修了者이온대 希望이 一次 農村에 子弟를 敎育하자하오며 農村에 靑年 其他 農村의 여러분과 가티사라보고자하오나 맛당한곳이 업습니다。 書堂、學院經營하시는분은 一次 採用하시요 下記住所로 問議하시면 履歷書送付하겟나이다。
忠北陰城邑六一六 韓彰

▲慶南金海生에게 法制學會講義錄全部를指者가買受하겟스니 其代價及講義錄의全期分인가를左記住所로下示之地仰望함
京城府杏村町三一의三 元容憲

世界의恩人ベルツ博士

梅毒의知識
梅毒은治療를그릇치면 무서운病變을이르킨다
驅梅療法과患者의注意!

梅毒、體毒、胎毒、橫痃、여드름가튼부스럼 遺傳梅毒、腦梅毒、脊髓癆、神經痛、리마치쓰、動脈硬化、神經衰弱、모든梅毒性疾患으로煩惱하는 분은一日이라도 速히實驗하야사람答이고 家族答이고 나종에는民族國家를 亡하게하는梅毒의治療는重大한問題이다

第一期梅毒
梅毒에感染하여도 軟性下疳과나지안는다 約三週間지나서局部에硬結과가려운症이생긴다 不注意하는사람은 그대로經過하지만 이것을硬性下疳이라고해서 다시淋巴腺에波及하야 橫痃이나타난다 이때는이미 黴菌이 全身에蔓延한 證據로서 淸淨한사람도곳더러워진다。

第二期梅毒
全身의皮膚와粘膜에 여러가지 發疹이出沒한다。口中 咽喉 肛門○門等의 粘膜에種種의形이되여나타나서 發熱 關節痛 脫毛 頭痛 神經衰弱外 疲勞가繼續되는千差萬別의症狀이 約一三個月間隔을두어出沒과消失이 反覆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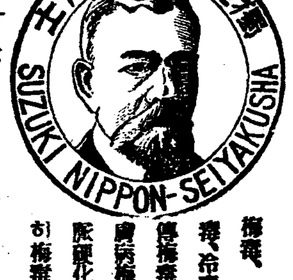
第三期梅毒
皮膚粘膜의深部 筋肉 뼈 內臟에病變을일으키어 慢性狀態로所謂全身에蔓延하야 痼疾이되는梅毒時代가옵니다 筋肉을破壞하여서는 畸形不具로서重要한內臟을侵犯하야드되여 죽엄에까지이르게되다 第二期後는晩期梅毒이라고해서腦神經의慢性病、卽麻痺狂痴呆症、脊髓癆等을일으키어 全혀狂人廢人이되여 버리고맙니다。

最善의治療
以上의梅毒症狀은 治療를放任하면반듯이規則잇게오는 病症으로實로梅毒의暴力은 그사람이사러잇는限거칠게하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어려운病이래도 熱心한治療를하면 假令重症이라고할지라도快癒식힐수가잇습니다 먼저梅毒은病原을 撲滅식혀야하는데 그方法으로서는 驅毒專門藥ベルツ丸의服用이야말로 가장好適한것이다 ベルツ丸은 梅毒菌을殺菌消滅하야 血液과脊髓液을淨化하야 新陳代謝의 機能을旺盛케하는結果 貫腸其他諸器官을强健케하는데서 무서운病毒症狀을防止하고充分한 治療作用이잇다 其

梅毒性神經衰弱도 全快하야事業도誠實하게
山形縣東置賜 佐野一[illegible]
前略 나는最初神經衰弱과가튼疲勞하야 梅毒性皮膚病으로부름이나서 最初는治療藥을使用햇스나 낫지안허서困難이엿습니다。그러든中 貴社의ベルツ丸을服用하면서는至今까지의 氣分이업서지고 얼골과手足의皮膚病도거이업서지고말엇습니다。참으로近日은놀래리만치몸이便해저서終日事務에從事하지만은 疲勞도不快도늣끼지안슴니다 이것도貴社의ベルツ丸을服用한德澤으로생각합니다。그러나放心은大敵이라 以上더健康해질려고하므로ベルツ丸을繼續하야 服用하므로七十五日分一個만 至急히送藥하여주십시요

그러케甚하든 皮膚病도자최가업다
愛媛縣宇摩 石川秋子
貴社에서 때때로送藥하여주신ベルツ丸으로 그러케甚하든永年의여드름가튼부스럼도 깨끗이업서저서 즐겁습니다。그런데 肩背痛便秘로 苦痛하엿지만 亦是ベルツ丸을服用하면서부터는 이즈듯이 업서지고그고통으로事務도볼수업게되여家內一同이ベルツ丸의虛偶업는藥效에感謝하고잇습니다。우리들과가티梅毒性病으로困難하시는분도만흔것이지만 꼭그러한분에게는ベルツ丸을 推奬하여마지안는바입니다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藥價 六日分一圓、十二日半分二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廿日分三圓、百八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徳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錢五厘

梅毒、體毒、胎毒、橫痃、遺傳梅毒、리마티쓰、腦梅毒、脊髓癆、痔疾、皮膚病、梅毒性부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에 良效잇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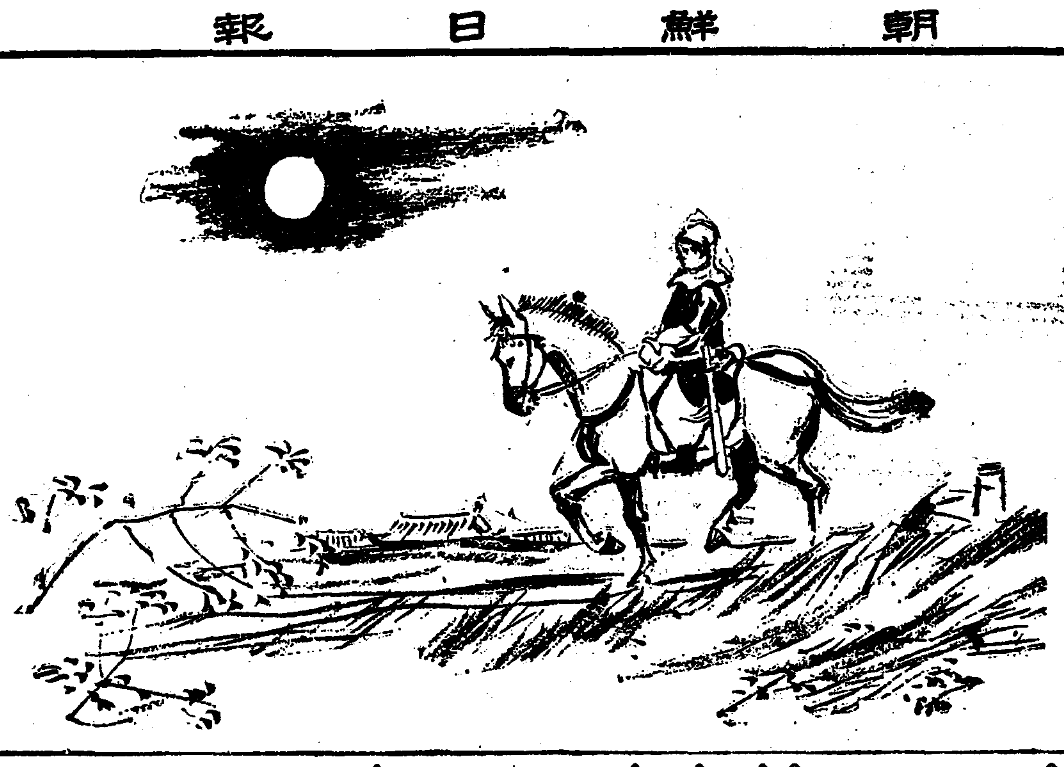
東京市日本橋區濱町二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壽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浪花八〇五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連載野談 (八九)

布囊記

申鼎言 作
金龍超 畫



선의잇는편에 (七)

이제 신라의 나라풍속(國俗)에 잇서 그중에 두가지 큰것이잇스니 남자로는 활쏘기를 추는것, 녀자로는 삼(麻)을 삼는것이다.

즉 그삼을 삼는 풍속은 우로는 왕후 왕비를 비롯하야 아래로는 백성의 부녀까지 뚝가려 빼하는 큰 풍속이니 궁중에서는 공주 혹은 옹주들을 장으로하고 다른동녀를 두패로 난호워 삼삼기를 시작하되 칠월그망(旣望)으로부터 팔월보름전 맷으로 새울(乙)까 일찬이낀 밤까지 삼아서 팔월보름날에 그솜씨와 분량을 상고하야 추석날밤 밝은 달아래에서 이긴편은 상을 주고 진편으로 주를 먹이는바 그삼삼는것을 「새밧(乙夜)삼삼기(績麻)」라고 나라사람들이 부르게 된것이다.

이 새밧삼삼기는 일직 신라시조왕께서 그알영(閼英)왕비와 갓치 여섯마울(六村)을 두루다니시며 농사를 권하실새 특별히 부녀자에게는 삼 삼는것을 권하섯다.

그래서 신라녀자는 누에치고 삼 삼고, 질쌈하는것을 천생직책으로 생각하야 힘쓰는중 그솜씨를 자랑하고 겨루하야 한번 쾌히 놀고저하는 생각으로써 팔월한가위가 도라오기를 고대고대한다.

또한 남자로서는 팔월한가위를 당하야 칼춤을 추고 말을 달리는 노름을하게하는것이 다만 그한때의 흥을 일으키려는것이 아니오 그러케 일직부터 몸과 마음을 용맹스럽게 닯련식혀 장차 나라를 위하야 그단련한것을 온전히 들어 밧치으로써 나라의 영광을 빗내게하려는것이다.

그럼으로 신라의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두 주먹을 불끈, 불끈 쥐면서 자긔의 재조를 세상에 자랑하기 위하야 그팔월한가위를 손꼽아 기달리게되니 특별히 그팔월한가위를 기달려 남자의 칼춤, 녀자의 활쏨은 상벌을주는 거룩한 노리를 지리거되것은 역시 신라풍속에 여러 명절중에도 팔월한가위 명절을 떠른 명절로 역인까닭이엿다.

신라남자로서는 이러틋 범범한 남자로서도 팔월한가위를 고대하거든 하물며 국선이된 남아로서야 그명절을 기다림이 어찌 심상하리.

이때 백운국선은 국선으로를 하뒤 아직까지 팔월한가위 노리를 치르지못하얏슴으로 온연히 뛰여난 포부와 힘잇는 미돌으로서 그도잇는 명절이 도라오기를 기다림이 간절하얏섯다.

그런데 구실내 엄 너른 뜰판에 국선의 모임이잇게됨을 뭇고 크게깃버하야

「아아 대장부로서 뭇을 날려 청운(靑雲)에 오르게될때도 정히 오늘이오 이로부터 장차 천하에 휘황하게되도 정히 오늘부터 시작.」

하며 양편의 영광을 렴려하며 몸으로 기리며 꼿구실내를 향하얏다.

백운국선이 국선의 정복을입고 큰칼을 차고 말에 올라 큰길에 나서니 힘잇입은 숫한무리가 모두 그말아페 이르려서 두무릅을 꿀코 두손으로 힘써 땅바닥을 문지르다.

대개 신라풍속에 로상에서 사람을 맛나 인사할새 두 무릅을 꿀코 손으로 땅을 문지르는것이 지극히 공순한 례이눌 이제 뭇사람이 백운국선에게대하야 그러한 노픈 례를 행하는것은 분명히 백운국선을 다만 국선으로써 대접하는것이 아니오별서 큰 귀인으로써 대접하는것이엿다.

이에 백운국선은 마상에서 손을 들어 그 뭇사람의 지극히 공순한 인사를 답례하면서 그첨첨히 쌓힌 사람의 틈질을 헤쳐 나아갈새

「내 비록 칼쓰는 재조가 뭇첨치는 못하나 용맹 여러사람의 입으로부터 신긔하다는 칭찬은 저바리지 아니할것。 그래커니 제후소저가 겻헤서 내 칼쓰는법을 보아주다 할지대 나의 용긔와 재조가 십분더 긔이하려만.」

하면서 백운국선은 제후소저가 구경하야 주엇스면하는 생각을 하얏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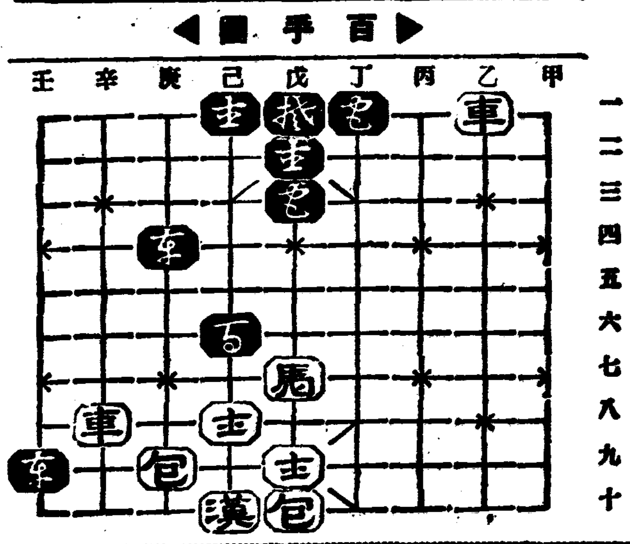
그러나 제후소저는 분명나서지못할것임으로 자긔의 신긔한 궁술을 다른 사람에게만 보이고 제후소저에게는 보이지못하는것을 매우 섭섭히 생각하며 그렁 저렁 구실내 언덕에 이르럿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 (十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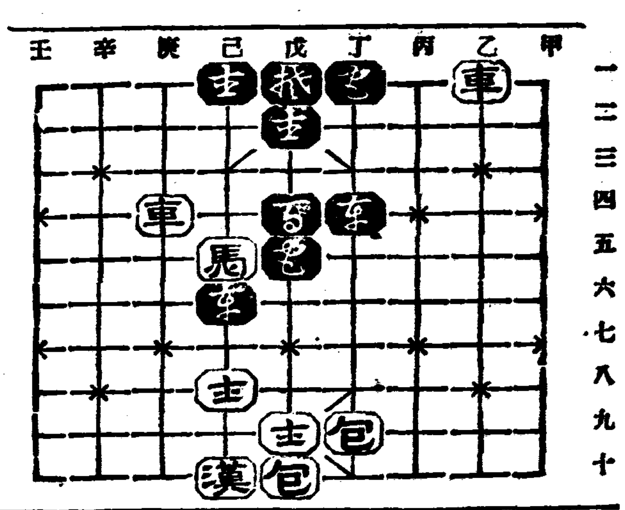
漢先手 李在鳳 對 楚 李英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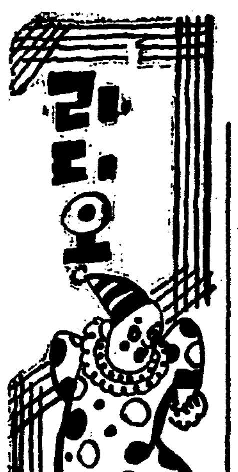
◀百手圖▶



◀百十手圖▶

庚九包─丁九 壬九●─壬十 辛八車─辛三 庚●─丁一 辛三車─庚三 己六●─戊六 戊七馬─己五 戊三●─戊四 庚三車─庚四 壬六●─己六





라듸오

十三日 (木曜)

◇午後六時三〇分 管絃樂 一、대장정이合唱─일·르르봐로─레中에서…베르디作曲 二、로레아도르의노래─카르멘中에서…비제─作曲 三、늘보이는곳(圓舞曲)…트바니作曲 四、小夜曲…드리고作曲 五、코르코반士官學校生徒行進曲…수─자作曲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復習時間 國語

◇同八時 農村講座(二) 市川榮三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羽調二數大葉 二、羽調頭擧 三、半葉 四、界面頭擧 五、弄 安在駿 金蘭珠

洋琴 薛明祚 / 大笒 金相淳 / 杖鼓 金永根 / 金一宇

◇同九時 流行歌 一、新農夫歌…金駿泳作曲(姜、金) 二、港口의哀想…同上(姜) 三、沙漠의눈물…同上(金) 四、名勝의四季…同上(姜、金) 五、님이여잘잇거라…同上(姜) 六、가시면못오시나…同上(金) 七、荒野에해가점으러…同上(姜金) 姜弘植

◇同九時三〇分 자진배따라기外 伴奏 DK管絃樂團 金楚雲
一、자진배따라기 二、孔明歌 三、山念佛 四、병조난봉가 五、개성난봉가 金順紅 金蘭香

第一放送

◇午後六時二五分 (富)趣味講座 關屋五十三
◇同七時三〇分(仙) 講演
◇同七時五〇 (大)舞臺劇
◇同八時五〇 (東)詩吟
◇同九時 長唄 山田積善
◇同九時二〇(大)朗讀 杵屋美乃志外

十四日 (金曜)

◇午前八時五〇分 (大) 野球試合實況 第二十二回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甲子園野球場으로부터)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바다는부른다〃 一景─鄭英轍作─ ─配役─明淑…姜玉順 그의오빠…文烈 納姬…韓貞子 相浩…廉浩星 行商人…白樂鎭 新興童人會 指揮 鄭英轍 効果 李基東 音樂指揮 柳基興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〇〇分 復習時間『算術』

◇同八時 法律講演 〃朝鮮의家族制度와親權〃 李俊興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尹元上 金昌龍 鼓手 丁元燮

◇同九時 平壤念佛外 一、평양염불 二、자진염불 三、도라지타령 四、흥타령 五、밀양아리랑 細笛 高一心 姜龍洙 牙箏 李忠善

◇同九時二〇分 名曲鑑賞 (레코─드演奏) 解說 朝鮮音樂家協會 朴慶浩

◇同十時四五分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放送 國內放送(第一放送에依함)

◇同十一時 (伯林) 實況

第一放送

◇午前六時卅分 英語講座 H·W·존스 O·K·뻐커
◇同十時卅分 (東)家庭講座 弘山龍太郞
◇午後零時五分 (東)라듸오風景
◇同六時 (大)童話劇 童心座
◇同六時二五分 (金)趣味講座 鎬太 勢岐
◇同七時卅分 (東)生活改善講座 田川大吉郞
◇同八時 (東)納涼이야기 悟堂軒圓玉
◇同八時卅分 (大)寄席中繼 北新地花月클럽에서

十五日 (土曜)

◇午前八時五〇分(大) 野球試合實況 第二十二回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
◇同六時三〇分 童謠獨唱 鄭琴湖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復習時間『國語』
◇同八時 週間時事 朝鮮日報 洪陽明 市川榮三
◇同八時三〇分 流行歌 一、압강물녀(李) 二、울며새우네(高) 三、꼿가시(李) 四、歲月의大同江(高) 五、채란새(李) 六、故鄕은는길이나(高) 七、봄소식(李高) 李銀波 高壽福 伴奏 DK管絃團
◇同九時 音律 平調會相中잔 靈山으로부터軍樂까지 玄琴 尹榮達 洋琴 吳瀲模 同 尹昌赫 洞簫 姜龍雲 大笒 李斗七 奚琴 金德鎭 齋樂 李宰珪 杖鼓 金基豊
◇同九時三〇分 古談 李殷求
◇同十時四五分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放送 國內放送 解說 飯田光太郞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速成獨語講座 登張信一郞
◇同十時三〇分(大) 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東) [illegible] 鶴見太郞
◇同六時 童話 沈淸傳 山岡操
◇同六時二五分(井) 趣味講座 史蹟巡禮 中谷文作
◇同七時三〇分(仙) 盃蹄大會 各局八分式 仙臺 市外
◇同八時二分 正調江差追分 唄上原呂子 尺八武井一鳳
◇同八時一二分(東大) 義太夫
◇同八時四一分 獨唱과高唱 寶塚音樂專科生徒 伴奏 寶塚오케스트라
◇同九時 時事解說

☆曆☆

八月十四日(金) 舊乙未六月小(廿七日) 戊辰·木·鬼·成
●祭祀裁衣動土上樑辰時開市納財安葬에宜함
●大暑二十三日(舊初五日)
●立秋八日(舊廿一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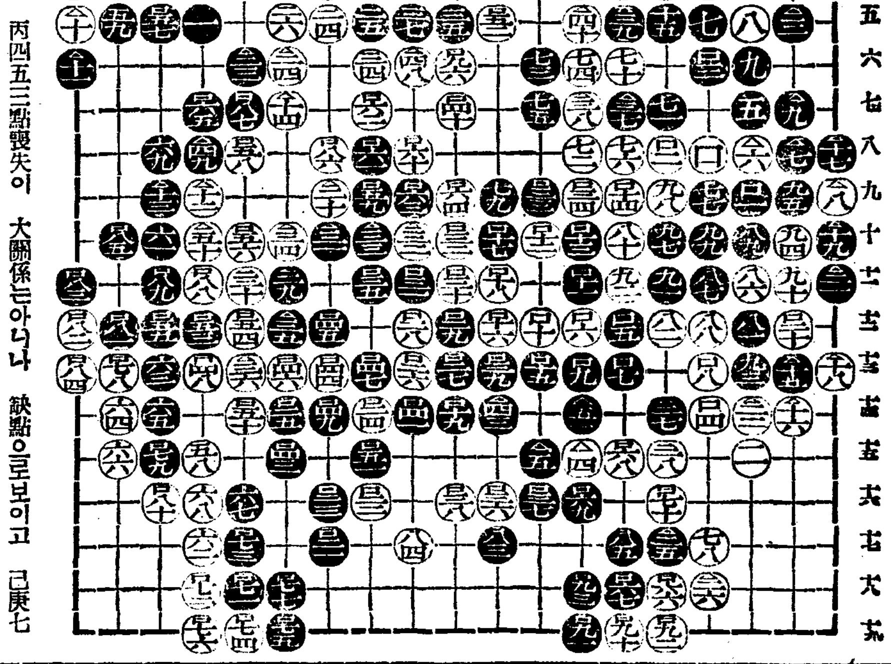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5＝

白 權秉都
黑 丁奎春

●二四一 巳의一
○二四二 庚의一
●二四三 壬의十四
○二四四 辛의一
●二四五 壬의一
○二四六 己의一
●二四七 子의一
○二四八 子의六
●二四九 巳의八
○二五〇 巳의十
●二五一 庚의十四
○二五二 申의四
●二五三 甲의二



蔡極文氏評曰 白이 最初에 丙四五三點毁失이 大關係는아니나 缺點으로보이고 己庚七八九連長馬가 釋慮가못되므로 癸子十六七區多大損害가 一大原因이나 白의 終末收拾은 許多方面에 少無缺欠이돼 黑의 先得權이 確定됨으로 勝點은 이로써 質言하노라

白 權秉都 白四十三目
黑 丁奎春 黑五十二目
黑九目勝

絢爛한天分의爭覇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 (女) 『슈─만』 一、님은 나의安息 (男) 『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 (F長調) ＝第一樂章＝ 『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 (G長調) ＝第一樂章＝ 『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종콜賞金을 授與함

審查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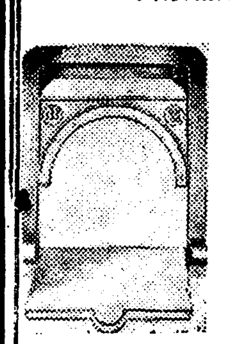
大掃除의必需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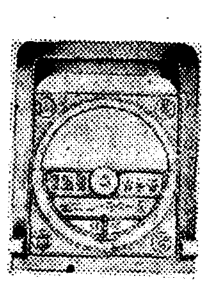
液體殺虫劑中에서 有效成分九八%라고하는 强力한것은 キンチョール뿐입니다 價格亦是 低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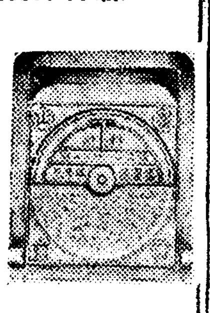
人畜絕對無害

金鳥かとり線香本舖
大阪 大日本除虫菊株式會社

森林保護燃料節約問題斷然解決!!


火門全體를연모양


火門을연모양


火門을다든모양

燃料恐慌時代에 우리家庭의大福音!!

富國竈는 燃料를 五割以上節約하고 溫度를 任意로 調節하야 冬節에는 上記寫眞과갓치 火門을 열어놋코 불을때여 방을더웁게하고 夏節에는 火門을 닷고 불을때여 방은더웁지 안케하며 燃料만을 節約하고 溫突掃除에도 아모不便이업는 神妙한 理想的發明品으로 우리家庭에 가장 適切한 絕大必要品이올시다 百聞이 不如一見이오라 卽時試用하여 보시면 그效果를 驚讚하실것입니다

理想的發明品

富國竈出現

定價 大一個￥1.80 中一個￥1.40 小一個￥.90

◎販賣員大募集 月收入六十圓以上確實!! 富國竈를全鮮에 宣傳키爲하야 各地에 販賣員을 募集하오니 有意하신분은 返信料三錢切手添付請求하시요 說明書送呈하겟습니다

郡特約店大募集 返信料三錢切手添付請求次第內容規定書送呈

富國竈發賣元 豊山商會
京城府體府町一九七 電光二九九八番

滿浦線開通에 對應 普通江改修等實現

明年度부터 四個年繼續事業 所要延人夫四百萬名

【平壤】 상공도시 평양과 전남포항과의 교통수송상에는 철도 약수선에 의하여 연락되고잇스나 평원선(平元線)과 만포선(滿浦線)이 개통되는때에는 화물의 신속한수송이 현재의 상태와가타서는 도저히 신속을바랄수 업기때문에 대동강과 보통강을 리용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책일것이다

이때문에 이십만원의 제일보로 보통강의개수와 운하(運河)공사는 명년도부터 사개년계속사업으로 사백만원의공비를 계상실시하게되어 토목출장소에서는 준비에 착수햇다

이공사의 개시로 사년간에사용할 로동자의 연인원(延人員)은 사백만명에달하는 호화로운 공사이며 로동자에게 떠러지는 로임도 이백사십만원에 달할터이므로 로동자는 평양에 집중하고잇서 호화판로동자 경기의 『맘뷔』가 전개될터이라한다

間島天主教會서 四十週記念會

【間島】간도천주교(間島天主敎)에서는 금년이 바로 천주교가 간도에 드러오지 사십주년되는 해이므로 오는이십사일부터 삼일동안 성대히 거행할예정인데 명날전부터 준비회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거듭하고 경축대회에 참가할 인사들의 편의를 위하야 방금 만주국 철로총국에 승차할인을 교섭중이며 기타 강연 전람 대운동회등 발서부터 대성황을 예상하고잇스며 삼일간 거행될 행사의 순서는 다음과갓다고한다

第一日 八月二十四日 駐滿敎皇使節代理歡迎會 映畵會

第二日 八月二十五日 敎皇使節代理執典大禮彌撒 祝賀式 祝賀宴 敎理競爭入賞者施賞式 旗行列 講演會 映畵會

第三日 八月二十六日 主敎執典大禮彌撒 天主敎係各小學校聯合大運動會 傳敎展覽會 敎育展覽會

咸南蹴球大會 開催期日延期

【咸興】오는팔월십팔 구량일에 홍원보통창회주최 본보마장지국 후원의제이회 함남축구대회는운동장수선관계로 본월이십 이삼량일로 연기하고 일층준비를하야 작고시입장소에서 개최하기로된바 벌서단체가 상당히 늘것을보면 대회는 사상이외의 대성황을 예기하고잇다하며 참가금은비에 분망중이라한다

一、時日 八月二十二三兩日
一、場所 仁興公普校大運動場
一、團體種目 靑年、幼年(小學團幼年과同함)
一、申請時日 八月二十一日午前九時까지
一、參加金 靑年二圓 幼年一圓
一、賞品 靑年優勝旗及獎勵金十圓 幼年優勝旗及獎勵金三圓
一、主催 仁興公普校同窓會
一、後援 朝鮮日報社馬場分局

全州師範學校 講習科生實習

【全州】금년부터 개교된 전주사범학교 강습과생이 백사십사명의 공보실습에대한 타합회는 지난십일에 도회의실에서 학교당국자와 도학무과 책임자로서 개최한후 강습생의 할당인원과 학교수를 다음과가티 결정하엿는데 실습관계타합회는 오는이십일에 잇스리라고한다

◆實習期間 前期八月卅一日로九月二十日까지 後期昭和十二年一月十三日부터二月十二日까지

◆割當校 全州第一校 四十八名 同第二校 五十四名 同女普校 三十名 東山普校 三十名 參禮普校 三十名 裡里普校 三十六名 雨林普校 十六名

交通禍防止策으로 各渡船場엔架橋

道內一二三等道路十五個所에 各橋豫算二十萬圓

【平南】장마때를 당하면 평남도내각지방의 교통은 전연두절되여 꼼짝할수업는 상태일뿐아니라 모험을하여 도선(渡船)을 하다가 도선의전복으로 불측한 참사까지 발생하는터이므로 도당국에서는 교통화를 일소하여 버리려고 명년도부터 시작하여 십개년계획으로 도내일、이、삼등도로 십오개도선장에 한개에 이십만원식의 예산으로 교량을 가설하기로되여 총독부에 허가를 신청햇는대 허가가되는대로 명춘부터 공사에 착수할터이라한다

全州工業補習學校 昇格을運動中

商議懇談會에서協議

【全州】개교에 오래역사를가지고잇는 전주공업보습학교(工業補習學校)는 도민전체적으로 동교의 승격(昇格)에대한 물의가 노파오든중 최근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목하모지방(某地方)에서 공업학교유치운동을 하는과미가 잇는듯하니 이긔회에 우리전주로서는 승격운동을 할필요가잇다하야 지난십일밤 의원의 간담회석상에서 현공업학교의승격운동을 하기로한후 근근도당국에 교섭키로하엿다고한다

世醫專同窓會 江原支部創總

【高城】지난팔월 구일오전열시부터 외금강 온정리소학교 대강당에서 세부란스(世富蘭偲)의학전문학교 졸업생으로 조직된 주로 강원도 방면에서 개업중인 금강의우회(金剛醫友會)제십삼회 예회가열리여 모든의사를 진행한다음 강원도 금강산일대 심한 지방에 산재한 도규계에 종진들로 세전동창회 강원도지부창립 총회를 열엇섯는데 이의목적은 동창회원간친목을 도하는 동시에 자기들의 직무인의약에대한 실험과 임상학에대한연구 발표를 목적으로 조직되것이다 여원을 선거하니 회장변기백(會長邊基栢) 간사백영조(白永祚) 리익수(李益秀)씨가 당선되여 만장으로박수로 환영한다음 총회는뜻맛고 그다음철원도립의원 외과과장 리병훈박사의 복막염 진단상의기치란연제의 강연과 철원도립의원장 지택씨의 게루도네루씨균에대하야라는 강연이잇슨다음 동일오후사시에 [illegible]

農村窮節을利用 不正債鬼跋扈

【江景】충남논산강경부근의 부정한 대금업자와 탐욕의지주배들이농촌궁핍을 리용하야 장리벼와장려돈을 소작세민층의 대부하는 사람이 점점만으므로 농촌세민의 위협은 실로크다한다

不義兒壓殺 取調段落送局

【木浦】전남함평군학교면금송리(全南咸平郡鶴橋面金松里)에 사는 라영조(羅永祚)의안해 리소녀(李少女)는 지금부터 십칠년전에 전긔 라씨와결혼하야 금년십팔세된 자식까지 두엇는데 결혼후이년만에 라영조는다시 김점실(金點實)이라는 녀자 [illegible] 지방법원목포지청(光州地方法院木浦支廳)검사국으로 송치하엿다

咸南에도土木豫算 三百萬圓을要求?

道路、港灣、河川等大改修로 豫算額容認이問題

【咸興】함남도 토목과에서는명년도 토목공사의예산 편성에분망중인데 그예산안의내용은 아직까지 비밀에부침으로 알수업스나 매개상백만원의정도로 그용인을 총독부에신청할터이다 방금 황폐하야 약간공우의 강설에도두절의 여지업는상태에 빠지고잇는일이 삼등도로의 개수개량은 물론하고항만(港灣)으로는 오래동안 현안으로내려오든 신포(新浦)신창(新昌)전진(前津)의 개축이며 하천(河川)으로는 홍원(洪原)서대천(西大川)정평(定平)금진강(金津江)의개수등이라고하는데 이것이용인되면 함남도는 공전의 토목개항금시대를 현출할것이라고하며 각방면에서 매우주목을하고잇다

마라손王孫、南兩君 世界征服祝賀聲

釜山體育會主催 戰勝祝賀會開催 —市內有志多數參集—

【釜山】우리의 세계적 마라손선수 손긔정 남승룡량군의 올림픽입상의 소식이 전파되자각계의 유지는 깃븐마음에 흥분되여 전부민은 명랑한긔분에차게되엿다 때를 놋치지 안코 부산체육회(釜山體育會)에서는 축하회를주최하야 각계의 유지아십여명이 오후팔시반에 부내초량정(草梁町)봉래각(蓬萊閣) 사층 홀에서 남、손량군의 입상축하회를 개최하엿는데 먼저 부산체육회장 김준원(金埈源)씨의 창도로 량군의 축하만세를 재창하고 각계인사의 감격에 넘치는 감상담이 잇슨후 화긔애애리에 십시경에 산회하엿다

釜山體育會長 金埈源氏談 實로壯快

깃브다! 우리손긔정(孫基禎)남승룡(南昇龍)량군이『마라손』에 우승 입상하얏다는 쾌보를 들엇슬때 맛치 오늘이조선의 생일인듯한 감이생기엿습니다 무쇠가튼 양군의 팔과다리로 열혈의 힘을다하야 비룡(飛龍)가튼『스피드』로 놀나운 강호 오십여선수를 정복시키고 우승한것을 생각할때에 조선이나흔 자손인만큼 산하인들 엇지 웃고춤추지안엇스리요 아!잘하엿다 승리의 성전장인 백림『올림픽스타디엄』에서 승리혼이 불타오를때 깃븜에 넘치는량군의 감개는、손군은 작년에도라가신아버님이 남군은 일즉이도라가신 어머님이 고향에 살어게섯드면 그얼마나 더욱깃거워스리요 오즉 [illegible]을빗나게한양군의공적이 더욱더욱장래의 조선의자랑의보배가 되기를 귀지를동하야 마음것축하하야 마지안는바이다

全州有志側發議 兩君記念事業으로 體育團體를組織

【全州】세계올림픽대회에서 우리선수 손긔정(孫基禎) 남승룡(南昇龍)량군이 마라손으로 최고의 권위를 독차지하엿다는쾌보를 듯게된 재전 사만부민의 작희야말로 전공에 사모첫스니 이날밤 각요리점안에서는 비공식으로나마 각방에서·손、남량군의 축배와 만세소래가 잇섯스며 의식잇는일에는 전주의각식자측에서 손、남량군을 의의잇게 긔념한다는뜻으로 전주의체육단체를 조직하야 만흔운동가를 양성하자는 발의가잇서서목하 다방면으로 활동중이라고한다

永興學校同窓會

【木浦】목포사립영흥학교(永興學校)에서는 오는팔월십오일오후세시에 동교강당에서 제구회 동창회를 개최한다는데 일반회원은 당일 회비이십전을 가지고 다수참석하기를 바란다 한다

精神病者의發作 木刀로兩親打殺

制止하는洞民에게까지暴行 慶州郡下中興里에서

【大邱】경주군내동면 중흥리(慶州郡內東面中興里)륙십구번지천관이(千寬伊)의 장남 병득(秉得)(二九)은 십일일 오전십시경 돌연히 정신에 이상이재발되여 목도(木刀)를 휘둘러 발광하는 것을 제지하고저하는 그의 실부 관이(寬伊)(六七)및 모친강씨(姜氏)(六○)를 란타하야 드듸여 죽게한후 집을 뛰여나와 동리 사람에게 모조리 폭행을 가하고 잇는것을 동민이 달려드러포박하여 당지경찰서에 유치하엿다는데 그원인을 듯건대 범인은 최근일본내지에서 도라와 집에 잇는동정신에다소 이상이잇서서 수양경계중이든바근일의 귀향한 계로갑작이 발광한것이라한다

記者團復活 宿案의一掃散

【高敞】전북고창읍내리(全北高敞邑內里)에서 이로부터 약십년전에 고창긔자단을 설치하여 언론의권위를 발휘하야오든바 저간 우연히 침체되여잇슴을 진작부흥키위하야 숙제중이든바 지난십일에 동아(東亞)、중앙(中央)、매신(每申)、전북(全北)、조선(朝鮮)오개지국이 회합하여 규약 수정기타를 원만히가결하고 동일오후여섯시경에 폐회하엿다

本報高敞支局主催 第一回庭球大會 오는廿二、三兩日間에

【高敞】본보고창지국에서는 지국설치의 피로와 지방운동열을 더욱 발흥식힐 목적으로 동아일보지국과 고령정구구락부의후원을어더 남조선정구대회와 전고령야구대회를 개최케되여 목하 준비에 분망중이라는바 원근 각지방에서는 만히참가하야 주기를바라다하며 대회 규정은 다음과갓다한다

一、時日 八月二十二日 野球部 同 二十三日 庭球部
一、申請場所 本報支局並高敞庭球俱樂部
一、參加金 每組二圓(中食提供) 申請時同添할것
一、賞品 庭球部 優勝旗並副賞 野球部 賞品優賞

金起林氏懇親會

【城津】본사사무를 휴직하고동북제대(東北帝大)에서 연구를거듭하고잇는 시인 김기림(金起林)씨가 하기휴가를 리용하야고향인 성진림명(臨溟)에도라온기회를타서 김우종 박경호 김수택金宇鐘、朴景鎬、金水澤) 제씨의 발기로 지난 구일오후 구시에 옥정공락원(共樂園)루상에서 김씨를주빈으로 시내문화청년 이십여명이회합하야 간친회를 열엇다고한다

留學生歡迎의 庭球大會盛況

【慶源】본보지국후원경원긔독교 면려청년회(慶源基督敎勉勵靑年會) 주최인 류학생환영회는지난 팔일오후한시부터경원례배당에서 열고옴의과간다화담으로만치엿는데 대만원이엿고 구일에는 보통학교코트에서 정구대회까지 성대히열엇다한다

泥醉한사람— 물건너다溺死

【[illegible]】지난구일오후두시 평북 벽동우장(碧潼雩場)충만강(忠滿江)에서는 술취한사람이 술대업는용맹을부리다가 그만 급한물결에 휩싸이여 무참히도 죽고 말엇다는데 그는 초산성서동(楚山城西洞)황성운(黃□云)으로 山城古館에잇는 동주에여지업시 취하여 그몸을지탕하지못함도 불구하고 충만강에 뛰어들어 그강을건너다 고 업는용맹을 내이다가 그만 급한물에 차이여 죽고말엇다한다

少女團員에暴行嫌疑 曲馬團長檢擧取調

元山署에서不日送局?

【元山】소위곡마단장(曲馬團長)이라는자가 자기가거나리고단기는 녀자단원의정조를 모조리유린하엿다는혐의로 경찰에붓잡히여 엄중한취조를받고잇는 사실이잇다—원산서에서는 경성부영등포모써커ー스단장 대전모(大田某)(三□)를 강원도고성읍(高城邑)에서 흥행중에잇든것을 소환해다가 유치하고 방금엄중취조하고잇는데 사건의내용인즉 지난오일전긔써커ー스단의 써커ー스껄인 김긔분(金起分)(一□)과 리금녀(李琴女)(一□)(以上假名)량명은 전긔대전의학대에못의여 원산으로 도망하야온것을 수배에의하야 원산서에서발견하야 보호하고 그들의도주원인을 취조하든중 의외에도 대전에게신인이공노할 추악무도한행위의혐의가잇슴을 알게되여 그와가티취조중이라고한다 즉 대전의독아(毒牙)에 걸렷든 전긔소녀들의 말에의하면대전은 물도업는 색마(色魔)로서 단원가운데 녀자라면 모조리 정조를 빼아섯다고한다 그리다가 드듸여 할수업시 그의 하는대로 맛겨두엇다고한다 심지어 유변까지도 그의독아에 걸려잇스며 자긔들은 범서 그에게 유린을당하얏다고 예소하얏다고한다 이에그서에서는 이중언을 엇기위하야 지난 십일 흥행지인 고성에서 다른 써거ー스껄ー들을 다려다가 취조하얏는데 그들은 전긔 대전은 모다시인하얏슴에 불구하고 사실을 부인하고잇스나 결국강간죄로 송국하리라고 하는바이러한사실이 만근즉출함에 비치워 일반은 이사건의귀결을 매우주시한다고한다

府尹聲明條件附로 變電所案遂可決

十二日平壤府會서

【平壤】평양부회석상에서 제이변전소건설(第二變電所建設)문제를 가지고 부회원들은 리사자측의 무성의또는 안하무인의거만한 행동이라하여 십일일의부회는 혼란상태를 일우다가 아모런결정도 보지못하고 휴회되엿섯다 함은 긔보와 갓거니와 십이일 오후한시부터 이문제를 가하고 간담회(懇談會)를계속개회하고 장시간 토의햇는데 부회의원중에서는 부윤의리유설명부터 신변전소의 설치는 서전(西電)에서의 매전(買電)을전제로 하는것이라고 이야기햇는데 부회로서는 작년부회와 금춘부회석상에서 화력발전(火力發電)을결의햇고 여기에 대하여맹진할것을 십팔만부민에게 약속햇든것이다 그런데 화력발전안과는 정반대인 변전소설치안은다무엇인가? 서전에서 매전하는 시설을 해놋코 총독부에 향하여 화력발전을 허가하라던지 수력전긔회사(水電會社)에대하여직접 매전을 교섭한다는 것이어대서 리치에당한 행동이냐?고 공격이심햇섯스나 고교(高橋)부윤은 『절대로 화력발전안을 무시하든가 수전 직접매전을부인하는것이아니라 이것과는 전연별개문제로 목하의상태로변전소의 필요를 절실이늣기는터이므로 이안을제안한것이라』고 성명하여 장내는 다소완화되고이어서 부회의를개최하고 전긔고교부윤의 성명을 조건부로 말성만튼 변전소건설긔재안의 가결을보앗다

電氣委員會를組織 電氣問題를調査 委員活動이注目處

제이변전소 건설안이 가결된후 상곡(桑谷)의원의동의로 화력발전을 중심으로하는 광범위의전긔위원회(電氣委員會)를조직하여 화력발전에대한『코ー스』문제를비롯하여 전긔문제전반에대한 조사와교섭등 일체를수행할 위원일곱명을 다음과가티 선정한후 다섯시삼십분경산회햇는데 금후 전긔위원회의 활동이 큰주목을끄을게되엿다 또전긔문제를 유리하게전개한다는의미로 장진수전(長津水電)의 설비를부회원들이 시찰할것을 가결햇다

◇電氣委員
▲崔鼎默 ▲李基燦 ▲金能秀 ▲石原 ▲桑谷 ▲山下 ▲大村

郡廳舍와稅署는新築 大田府廳移轉決定

現在의大德郡廳舍로

【大田】작년에부(府)로 승격된 대전부의 부청사(府廳舍)는 구유사무소청을 그대로 사용하게되야 청사협착으로 적지안흔불편을 늣겨오게되야 충남도당국에서도 그동안 그선후책을 연구중에잇든바 현재대덕군청(大德郡廳)을 충독하야 부청으로사용하기로 결정하고 대덕군청은 새로이 건축하리라고한다 대덕군청을 유성(儒城)으로 이전운동이 일부에서 맹렬이 이러낫스나 도당국의 의향은선거대유성은교통관계로 이전할수업슴으로 불원간 대전부내에 신축하리라는바 여기에따라 현재군청과 가티잇는 대전세무서(大田稅務署)도 신축하리라고한다

生活困難으로 靑年縊首自殺

【木浦】지난십일오후세시경에목포부내 죽교리(竹橋里)사백번지 보안림내(保安林內)에 상출로목을 매여죽은 시체가 잇는것을 때마츰그곳을통과하든 사람이발견하고 곳목포경찰서에 신고하얏는데 그는 주소부정의김대길(金大吉)(二□)로 판명되얏는바자살원인은 생활곤난이인듯하다고한다

各地의洪水亂 平澤平野水國化

三千餘町步浸水 橋梁流失、交通杜絶

【平澤】진위군(振威郡)평택지방에는 지난달 십일일부터 일긔가 조치못하고 늘비가 나리게되여 사람을괴롭게하던중 금월십일 오전부터 벼락간 계속적폭우가 나리기 시작하며 곡물소산지로 유명한 평택평야는전부침수가되며 수국으로 화하엿고 평택에서 아산(牙山)방면으로가는 평택교가 유실되여 손해가 삼만여원에 달하엿고 안성(安城) 방면으로 가는곳도다리가파손되여 전부불통이 되엿스며 도로와 교량등의 파손된 손해가 수만원에 달할뿐 안니라 농작물(農作物)은 전부전멸상태에빠저 인심은다시 불안하다고한다

市內만은無事 消防組員活動

별항보도와가티 벼락간 폭우가 쏘다저서 하천물이 넘치며 제방과 교량이 유실되여 부근일대는 대소동중에잇드니 밤열두시가되자 안성방면에서 물이밀아기 시작하여 류천리(柳川里)와 군문리(軍門里)를 비롯하여 사온동리는 전부 침수가 되엿고 평택제방이 위험하게 될뿐안니라 제방수문으로 물이 넘처서 평택시내로 물이 밀이기 시작하여 시내는 전부 대소동이엿는대 당지경찰서와 소방조원들의 필사적 활동으로수문을막어서 시내는 별소동이업시그밤을 그대로 지내엿다

各地交通杜絶 牙山邑中心

【牙山】충남아산지방은세우가련일나리다가 지난십일 일 오전팔시부터 동십시까지 폭우로산십오미리가 나리고 동십일시부터 동일밤까지 『일백이십구미리』의 폭우가 쏘다젓스므로 온양온천에서 공주로 통행하는 도로가 파괴되여 교통이두절되고 온양、아산간 도로가 침수되어 아산우편소로·보내는우편물까지 발송치못하여 상업자의 대타격은 물론、농장들의피해도 막대한현상이라한다

秋季大競馬大會

【平壤】평양경마구락부(競馬俱樂部)에서는 오는십사일부터 삼일간 동십칠일부터 삼일간 이십삼일부터 이일간 추긔대경마를 거행하기로 되엿다한다

地方人事

▲申相彬氏(黃海地鋤靑年聯合會會長) 定期總會出席次十一日豊川到着

▲古谷光藏氏(延白警察署長) 今般新任人事次 本社白川支局來訪

牛乳石鹼

炎熱下에 당신의살결은 새까마케타겟지요

그러케타서거츠러진살결은반듯이거품이잘일고柔軟한刺戟性업는『牛乳』로整齊하여주십시요

꼭 당신이빵끗에 우스리만치 近代的인健康美를創造합니다

거품이美를내는牛乳石鹼!

本舖·大阪共進舍石鹼株式會社

中國農村振興? 協同組合熱의勃興

中國의 農村經濟振興을 目標하야 組織된合作社(=即中國의 協同組合)事業은 最近可觀의勃興을보여 發展되고잇다. 民國二十四年中에 新設된것만으로도 一一、五七五社의 多數이며 前年에比하야 倍增이엇다

合作社라는것은 例컨대 中國에있어서는 [illegible] 그것이近代的 協同組合으로서 再出發한것은 겨우十數年以前이다 即民國八年(大正八年、即一九一九年) 孫文의友人으로 當時上海復旦大學 教授이던 薛仙舟가 먼저 提唱하야 그指導下에例의 陳兄弟의兄 陳果夫이 同志와더부러「國民合作社儲蓄銀行」을 經營한것이 實際運動으로서의 始初로서 當時陳等의 目的은 一、合作主義普及 二、小資本經營援助 三、預金者[illegible]積立保存 의三項目이오 이로써도 近代合作社가 信用組合으로서 發足한것을 알수잇다。 信用合作社에 뒤지기 四年 民國十二年에 至하야 農村合作社가 創立되엇는데 實際로 成果를 擧케된것은 民國十七年(一九二八年) 南京政府內에 合作委員會가 設立된以後이다 이合作委員會라는것도 陳果夫의發議에 基한것으로 即國民黨中央部는 下級黨部의 工作綱領으로서七項(合作、造林、識字、衛生、國貨、保甲)을 採用하고 그 第一項目으로 合作을 奬勵하얏다 南京政府는이 合作運動으로서 農民의 生計를 援助하는同時에 農村에 [illegible] 共産黨化를 防衛코저하얏다。 따라서 現南京政府首腦의 合作社에 對한期待는 [illegible]以上의것이잇다고한다。

×

그다음으로 入社條件及組織의 槪況을보면 中國合作社法의規定에依하는 「中國의人民으로서 滿二十歲以上에 達하고 正當한 職業을가지며 合作社의組織區域內에 住하는者는 合作社社員으로 入社할수잇는」이라하얏슴으로 [illegible] 代表社의創立者인陳兄弟의 主張이라 그表面上의 規定以外에 어려운手續이 要請되는듯하다 例컨대 一、社員은 人格이高潔함을 要함 二、合作社를 直接利用하는能力이잇는者에 限하야 入社를許함

三、合作社는 [illegible]이 [illegible] 社員은 相當한生計를 [illegible] 自力生活을하는 者임을 要함 [illegible] 土地의 [illegible] 協同組合 [illegible]고잇는 [illegible]以下에는 合作社의 [illegible]가 [illegible] 閉鎖되어 잇다。

그다음으로 合作社의 組織은 最高機關으로서 社員大會가잇고 그아래에 十三名의 理事會가잇서 一切의事務를 責任으로써 實現執行하고잇다 更히 監督機關으로서 三名의監事會가잇서 理事의 業務執行 [illegible] 監督코잇다。 따로히 補助機關으로서 各種의 委員會가잇다。 例컨대 一般合作社의 補助機關으로서는 教育委員會、經濟委員會가잇고 生産合作社에는 生産設計委員會、生産改良委員會等이잇스며 販賣合作社中에는 評價委員會等이잇다 [illegible] 合作社의 [illegible]것을 指導하는것으로서 [illegible] 縣政府、[illegible] 合作事業委員會、[illegible] 等이잇는데 合作社는 [illegible] 代的[illegible] 合作社의 [illegible] 수나 實際支配하는 [illegible]은 極少數의幹部에限하고 此等幹部는 黨部의中樞인同時에 CC團 [illegible] 幹部를兼코잇다 [illegible] 合作社는眞正으로 農村[illegible]을 爲한것이아니오 蔣介石一派의 勢力扶植의 機關에不過하다

×

合作社는 入社條件의 [illegible] 과效果의 疑問에도不拘코 年年飛躍的增加를 報코잇슴은事實로 最近三年間의 增加의勢를보면如左히 激增을示코잇다

	社數(社)	社員數(人)
一九三三年	[illegible]	[illegible]
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三五年	[illegible]	一、〇〇四、[illegible]

民國二十四年(一九三五年)末現在의 合作社를 種類別로보면

	社數	社員數
信用	[illegible]	[illegible]
販賣	[illegible]	[illegible]
購買	[illegible]	[illegible]
利用	[illegible]	[illegible]
生産	[illegible]	[illegible]
兼營	[illegible]	[illegible]

또二十四年末現在의 合作社를 主要省市別로分類하면如左하다

	社數	社員數
江蘇	四、七七〇	一三八、三七〇
浙江	一、九七二	七七、八六六
江西	二、〇三八	一三一、四四七
安徽	二、二八四	七三、六七三
山東	二、七三七	一〇六、一四三
河北	六、二四五	一三五、九五三
山西	四五三	六、六九二
河南	一、七六一	一〇、三二四
湖北	一、二二八	六〇、一二二
湖南	九六三	五六、四八六
廣東	三〇七	一三、三一四
上海	一一三	一七、〇九二

朝鮮未開發石炭 資源은無盡藏!
又…木材資源도相當히豐富
總督府에서開發計畫

石油畜藏이 豫少한 日本에 잇서 最大急務인 燃料對策은 石炭의 液化와 代用燃料의 研究、까소린消費의 節約으로 政府는이問題를 重要政策의 一로잡고 그 解決에 邁進中인데 總督府로서도 政府의方針에 順應하야 明年度부터 積極的으로 燃料問題 解決에 努力키로 되어 이經費 二百八十餘萬圓을 明年度 豫算에 計上키로되엇는데 昨日渡東한 穗積殖産局長은 이에關하야 政府當局과 意見을 交換하고今後具體方針에 關하야 協議키로 되엇다한다

一、朝鮮의 未開發石炭資源은거의 無盡藏으로 豐富함으로이것을 原料로서 朝鮮內에石炭液化工業을 勃興케할것

一、木材資源도 相當히 豐富함으로 同時에無水알콜工業의勃興促進에努力할것

一、一方으로人造纖維工業의 勃興이잇고 將來木材資源이 不足할것이 豫想됨으로 澱粉을 原料로하는알콜 製造의 工業化를研究하는 同時에가가운將來에 澱粉의 增産計畫을 樹立할것

一、까소린消費를 節約키爲하야 알콜混用獎勵政策을 取할것 等의根本方針을決定하야잇고 그具體策으로서

一、石炭液化와 無水알콜工業에 對하야서는 機械設備 其他補助金을 興하고 그助成에 努力함(明年度所要額二百七十萬圓)

一、無水알콜工業은 統制가必要한見地로 特許工業으로하고이에必要한 法令을制定할 等인데 日本內地와 朝鮮을通하야 石油統制問題、販賣問題等의 諸問題가 殘在함으로 穗積殖産局長은 此等問題에關하야 政府當局間에重要協議를行하리라한다

採鹽과葉煙草 今年의收納狀況

專賣局의今年度採鹽狀況과 葉煙草收納狀況은 다음과갓다

▲採鹽狀況=今年은 最初 梅雨期가 遲延된때문에 業績不良이 豫想되엇스나 六月에 드러서 好順氣로 回復되야 七月末까지는 採鹽豫定額의 一億二百八十萬斤에 對하야 約七割八分의 一億五千七百六十萬斤의採鹽이 끝낫다 例年七月末까지 七割 秋季三割을 採鹽키로되야 今年은平年作以上의成績이다 今年은 品質의向上엔 注重한때문에 採鹽의 增收는 그다지 豫想되지안는다 이번의降雨量은 朱安方面에 多少影響이 잇스나 廣梁灣地方은 比較的降雨는 적은때문에 큰影響은 업다

▲葉煙草收納狀況=이번의 降雨期間이 相當히 기럿든때문에 全州、忠州地方은 葉煙草耕作地에 相當히水浸되고 이것이 永續하면 相當한被害가 잇슬것으로 念慮되나 아즉 報告가업서 不明하다 그러나 多少의 被害는 免치못할것으로 豫想된다

朝鮮內燒酎消費 今年度顯著增加
造石追加를申請

今年釀造年度(自十年九月至十一年八月)의 朝鮮內燒酎의 消費는 米價高、鑛工業의勃興、漁獲의活況과 土木建築工事激增等으로全般的增加를 示하야 前年實消費보다 一割增加를 豫想하야 許可된 四十五萬七千石의 釀造所에서는 供給不足의 念慮가 濃厚케되엇슴으로 따서 二萬二千石의造石許可를 어더 그緩和策을 講究하는터이데 그實績으로 보면 來年度의消費는 五十萬石을 突破할모양이라고한다

朝鮮會社異動
七月中新設增加

七月中 朝鮮內計畫資本의 異動狀況은 新設會社가 六十九社에 達하야 事業熱의 旺盛을 말하는데 新設會社數와 資本金은다음과갓다고 (以下單位)

株式	四四	一〇、三〇〇	[illegible]
合資	一六	三四	三四
合名	[illegible]	九九	九九
計	六九	一〇、[illegible]	一〇、[illegible]

그리고 增資한것은 다음과갓다고

株式	三	[illegible]	[illegible]
合資	七	[illegible]	[illegible]
合名	一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朝鮮穀物聯合會 社團法人改組

朝鮮穀物協會 聯合會의社團法人으로 組織變更할 問題는 過般의幹事會의 決議에 基하야 定款을作成하고 十五日總督府에認可申請하야 認可를엇고 九月十九日 咸興에서 열닐大會에 附議한뒤 改組키로되엇다고

鮮滿拓殖株配定

不遠創立總會를 열鮮滿拓殖會社(資本金二千萬圓)의株式配定은四[illegible]

殘存米數量 二千四十萬石
◇…八月一日現在로

【東京電話商通】八月一日現在全國殘存米高는 二千四十二萬五百四十五石으로 이것을 前年同期에 比較하면 百九十四萬六千百五十三石의減少이라고

朝鮮米移入	一、三〇〇
臺灣米移入	[illegible]
合計	[illegible]、七二〇
▲需給	
消費高 (過去三個年同期平均)	一四、六〇〇
移出高	一〇〇
計	一四、七〇〇
差引持越	九、〇二〇

米端境期 需給의推算

【東京電話商通】八月一日在米의 二千四十二萬石을 基礎로 端境需給을推算하면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石)

◆供給 八月一日在米 二〇、四二〇

即端境持越은 九百二萬石으로 그中政府米를 빼이면 民間所持는 約 三百八十[萬]石으로 推算되야 四五月頃에 比하면 需給의窮乏은 相當히 緩和케되엿다고 한다。

作況判明如何론 政府持米를拂下?
今月下旬頃의豫想

【東京電話商通】目下政府의 所持米 五百二十萬石中 八年産이 二百八十萬石에 達하고 日本內地米의 作況은 平年作以上으로 觀測되는 오늘에 아즉도米價가 노픈감세 잇슴으로 八月十五日의 作況이 判明되를 기다려今月 下旬頃買換拂下 或은整理拂下를 斷行할모양이라고한다

不拂下說도不無

八月一日現在의殘存米에基한 需給換算에依하면 端境期持越高는 民間所持 三百八十萬石으로되어 (別項參照) 需給은 그리窮屈치 안코 一部에서行하는 新米靑作의對策으로서 出廻期의買上增加에 實力을加하는 意味로 買替의擧에出치 안흐리라고보고잇다 即自治管理法은 이미公佈되엇고 豐作인十一年産은 同法에依하야 處理될 것으로 今月中旬發表되는 稻作 狀況을본後 拂下處置에出하리라는 見解도잇는데 隨時賣却及八年産[illegible]

京城在庫增加

京城市內 六營業倉庫의 七月末在庫는 十二萬二千八百三十六個、價格三百十一萬三千六百二十五圓으로 前月末에比하야 一萬九百十八個、價格四十七萬六千六百六十九圓의各 增加이엇다고

▲重役人物

鮮滿拓殖會社의 今日까지決定된 重役人物은 다음과갓다고
▲總裁 二宮治重 ▲理事 渡邊豐日子 堤永市 白坊盛一郎▲監査 高元勳 一名未定

取引停止 (八月十日)

▲精米業 京城府岡峴町一九一番地太陽精米所 姜祉 ▲運送業 京城府蓬萊町一丁目二四番地合資會社桐原運送店支配人 長野修享 ▲吳服商 京城府本町四丁目七番地井筒屋衣服店 浪木善次郎 ▲土木請負 龍山業 京城府古市町一四番地秋田泰造 ▲製粉打綿業 京城府麻浦町五六番地 李義植 ▲京城府永登浦町四二番地 李起寬 ▲土木建築請負業 京城府花園町二三番地後藤興業所 後藤清延

經濟界消息

○朝鮮米輸送協會支部設置=朝鮮米輸送協會는 十日의 會合에서 鎭南浦、仁川、群山、木浦의四個所에 支部를 設置키로되엇다고

○殖銀副頭取任命은十六日頃=殖銀副頭取任命은 十四日의 定期總會終了를 기다려 곳總督府에對하야 定款變更의 認可申請을하기로되고 一面 南總督이 當任치안켓슴으로 決裁關係上 十六日頃으로 될모양이따 그러고理事一名의 任命도 同日頃에 되리라고

○第二次 歐洲大戰을 豫想코 海運界 頂點
○ 잔뜩 還航해 노앗다가 이 안나면? 바라속에 석힐 작정인가
○ 北朝鮮에 勞働者가 大不足 이라고
○ 朝鮮人 勞働者는 低賃이라는 烙印을 찍어노코 不足云云은 滑稽
○ 勞賃만 相當히 준다면 勞働者가 어련이 모여 들라고
○ 商工諸團體를 全朝鮮的으로統制하리라고
○ 商業組合令, 工業組合令을 發布施行 하면 저절로 統制될 것 아닌가

重要商品界事情

製粉多少異常

內外原料의强調로 十二三年以來, 稀有의노픈가증 나타내인 製粉市勢도 反動低가 왓다。
◇
過般以來의 騰勢로 보면 그程度의 反落은 問題가 안되야 外麥如何로는 아즉도 노픈가지 남어잇는것 가티 생각할수가잇다。
◇
그러나 後援材料의 外麥情勢도 얼마큼 繼續가 잇다고 傳하며 또 日本內地의 原料도 各社가 모두 準備되어잇스나 아프로의 態度如何로는 製粉市勢에꼿 影響될모양이다。
그러고 지금까지 閑却되든 實需의不振도 米價와의 關係로 問題가 될것 가티 보히는만큼 此等의 事情을 綜合하야 생각하면 아프로의 製粉市勢는 새로운 材料가 언다고……

株式 利喰物로少戾
商況【十三日】

前場下澁

昨後場下落이나 今前場은또 利喰急과 突込警戒로 下澁少戾하야 東新百二十一圓七十錢에 九十錢高 大新六十七圓十錢에四十錢高 鐘新百六十圓三十錢에六十錢高 日産七十八圓七十錢에三十錢高 朝新三十圓七十錢에十錢高等으로 寄付이엇스나 다시弱하야 結局東新은昨後市同價인 百二十圓八十錢에低價大引이고 其他도 朝新하얏스며 朝日은 三十圓丁大引

▲東新 [illegible]

後場反戾

後場은 低迷裡에 反戾이엇스니 東新百二十一圓十錢 日産七十八圓四十錢 朝新三十圓九十錢 日産新二十五圓八十錢 日魯七十圓五十錢에 各大引 鐘新百六十圓二十錢 大新六十七圓丁 北紙二十三圓八十錢

東新崩落必至?
但惡目은買場視

[매마로] 立會休止後 再開當日인 七月二十四日에 百二十圓三十錢에까지 實前된東京東新은 二十七日 또百二十圓三十錢이잇고 今月五日 百二十六圓丁에 反撥되고나서 다서不勢로 昨後場帝十圓九十錢低價大引인 뒤를이어 今前場도 또百二十一圓丁에 下放되고 百二十一圓丁에 [illegible] 二十圓九十錢이 底固인듯하나 大體市勢가 低價에잇슴으로떠려저도 얼마안되리라는 人氣로 시로로가 總賣인때문에 양바리고 잇는모양이다 그러나 東新으로서는 極度悲觀이면서도 突込지안코 客側總買인것이 禍根으로서 어듸서든지 무엇이든지 動機가되면 相當한 瓦落이되이슬 것가티보인다 低價이고서의 崩落임으로 勿論急反發도 可期로되 이대로는決코 順由히上進할 氣力이업슴으로 再言할것도 업는터이니 低價를 賣키실커든 突込面의崩落되기를기다리고 잇는 게 사기가어려울터이라는 보는모양이엇다

鍾新과日産은 强氣的解釋有力

東新은人氣回復이 至難視되어비록팔지는안흐래도 사지는못할것으로보이는터이나 鐘新이나 日産은前途에 對한囑望이 依然한 모양이다 ▲日産=東新過去人氣를 移入코저하는日産은 低金利와 軍需인 푸레를背景으로 好材料사는 買氣를蓄積하고잇슴으로 今後의不安市場을넘어 슴면 日産系株부터反撥

期米 下澁이나軟弱

前場下澁

昨後場阪地十五錢에 場을止한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二圓三十一錢二丁反高를 據하고 三十圓十七錢인 二丁高로 場을始한後 阪地[illegible]節二十六錢까지 小弛하엿다가 二十九錢으로 二十七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三節十五錢으로 十八錢까지 小戾하엿다가 結局十七錢에場을止하엿다

後場軟弱

後場은三十圓十六錢에 頑强이엇스나 二錢에 五丁低로 始場後十六錢[illegible]

株…東京東新은 百二十圓九十錢으로 떠려지고나서도또 머무적 ▲百二十圓關門이원의 큰 關門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低價保合이 甚한걸▲人氣株는 特히國策의 確定을기다리고잇는데 언제나 꼿장이날는지? ▲好惡間 꼿장이나면그것을 根據로 採算이던 投機이던 움지기겟는데 氣迷一貫이니 奈何? 이런때는 形勢推移傍觀이첫이라 實明 (前場記)

米…米界의 注目을 莫하는 阪田中自의態度는 아즉도變치안코 買物을支持▲그러나滿의感이업지아니하야 新規買는 하지못하고 賣方의損退物이 懸案로되야 利退하려하는計畫이라나▲萬一賣方이損退하지안는境遇에는買方은蘇米를하여야할것인데 할모양이다 ▲買方이버리는때는賣方은蘇米集의問題 ▲그럼으로 渡米의荒集이問題 昨今의市勢는떠려질뜻하고도依然堅昧를 添할뿐이다 果然 [illegible] 以米拂下云云은如何히影響? [illegible]注目꺼리

今日財界 (十三日)

◆米 [illegible]
◆綿 [illegible]

山種新規賣買停止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日滿아루미 [illegible] ◆에라파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本曹達新 [illegible] ◆金剛電鐵新 [illegible] ◆鮮滿開拓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環境安定에 伴하야 再開劈頭 內債三分半은 모다恢復으로 轉하야 其他는大概五錢高이오 外貨債는 佛貨五分半六分半共히 十三錢高로 反撥되엇다 (取引高[illegible])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illegible] ▲佛貨四分利 [illegible]

豫想보다減少 三十萬石이나

八月一日現在日本內地殘存米는昨 夕頃에까지 第三次分을 發表하엿는데 總殘存高는 二千四十二萬五百四十五石으로 昨年同期의 二千二百三十六萬六千六百九十八石에 比하면 百九十四萬六千百五十三石의 減少를 示하고 七月一日現在殘存米에 比하면 五百十七萬二千三百四十一石의 減少로 發表前一般의 豫測보다는 三十萬石이나 더減少모양이다 그런데 總殘存高에서 政府米五百七十萬石을 控除하면 民間의 在米는 一千四百七十二萬五百四十五石으로 一個月消費高를 六百萬石으로 假定하면 結局民間持越은 二百七十二萬五百四十石이라하면 日本內地人을 百五十萬石이 아니된다 그러나 朝鮮米及臺灣米의 移入量을 보게됨으로 政府米의 拂下를要하지안코도 足히需給을 維持하게되다果如何?

雨域漸次移動 九州서西部로

今般漢江上流及 洛東江上流地方 及中部方面을 中心으로한 豪雨는 農作物의 非常한 被害를 與하고 姜雨하여오든 不連續線은 半島南岸으로 漸次移動하야 南朝鮮及 九州, 山陰方面에 大雨를 襲來하는 모양인데 今朝仁川觀測所의 發表한바에 依하면左記와如하다
氣壓配置는 昨朝와 大差가업서 太平洋의 高氣壓은 半島西部에까지 擴大되어 잇스며 黑龍江中流域에는 低氣壓이 滯留하고잇다 不連續線은 更히 半島南岸으로 移動함에 딸아 雨域도 南鮮으로 옴기어 南朝鮮及九州, 山陰에 大雨가잇섯다 그러고 半島中部及日本內地도 大部分雲天이나 北中國及滿洲鮮及南西諸島는 好晴이고 半島南岸의不連續線은 徐徐히 東方으로移動함에딸아 日本西部는處處에大雨, 朝鮮南部의雨天은 次第로恢復되나 中部以

朝取期米取組內容

北部(?) [illegible] 은依然히 賣方優勢로 內地[illegible] 으로 賣方가잇슬모양이라고하엿다

◇當限 賣方 買方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堂島前場賣買

【大阪電話】今前場의 主要賣買는如左하다
賣方=地場派 中東側乘替
買方=地場派

各地正米

京城同價

期米銳調로 一般買氣不振이오 市況은極度沈滯이다 ㊉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一〇 一等白米 二三、〇〇

仁川不變

日本內地賣行一層慘擔과 期米不昧로 入氣不冴이오 市況閑散에 保合이엇다 ㊉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二〇 一等白米 一三、六〇

釜山强調

産地高로 市場人氣는 去益强硬이오 市勢도新高量不敢하야 更히 十錢騰貴을 告하얏는데 商高價合이다 四三等 四一、五九 四等 [illegible] 五五 一等白米 一三、[illegible]

大邱不動

定期操合으로賣用側의買氣가 散見되는 程度에 不過하고 市況은 極히活氣가乏하야다
四三等 三一、二〇 四等 三〇、[illegible] 九〇 一等白米 一三、三〇

群山軟化

實行不振에다가 期米不勢를 移하야 低氣配이고 天候恢復으로 産地도 此邊의價位에는 賣氣를보이엇다 ◉三等 三一、八〇 四等三一、六〇 一等白米 一三、七〇

木浦保合

先高必至를 見는 持米側의 賣惜으로 人氣强硬하야 取引은 잘되지안헛다 ㊉三等 三二、〇〇 四等三一、七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康益夏商店
米 株
仁川 京城
金益證券
盈

仁川 期米
福
吉村取引店

德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元 金
電話本局 3939
振替京城 2 3-4

朝鮮紙物都賣 北
全北企業株式會社
兼委託販賣
京城府[illegible]
支店 全州府本町一丁目
電話 [illegible]
振替京城 [illegible]

金融 十二日

◆海外經濟 十二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十二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十二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東京市中金銀價 [illegible]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米穀 十二日

◆京城正米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正米大豆 [illegible]

商品 十二日

◆京城綿系布市勢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鎭南浦 [illegible]
◆仁川沖價 [illegible]
◆日本棉花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産市勢 [illegible]

株式 十二日

◆朝取短期取組高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大阪短期取組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十二日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大阪正米期渡價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各地正租市勢(單位錢) [illegible]

商品 十二日

◆大邱綿系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大阪人絹現物 [illegible]
◆橫濱生系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滿外砂糖 [illegible]
◆外國豆粕(?) [illegible]